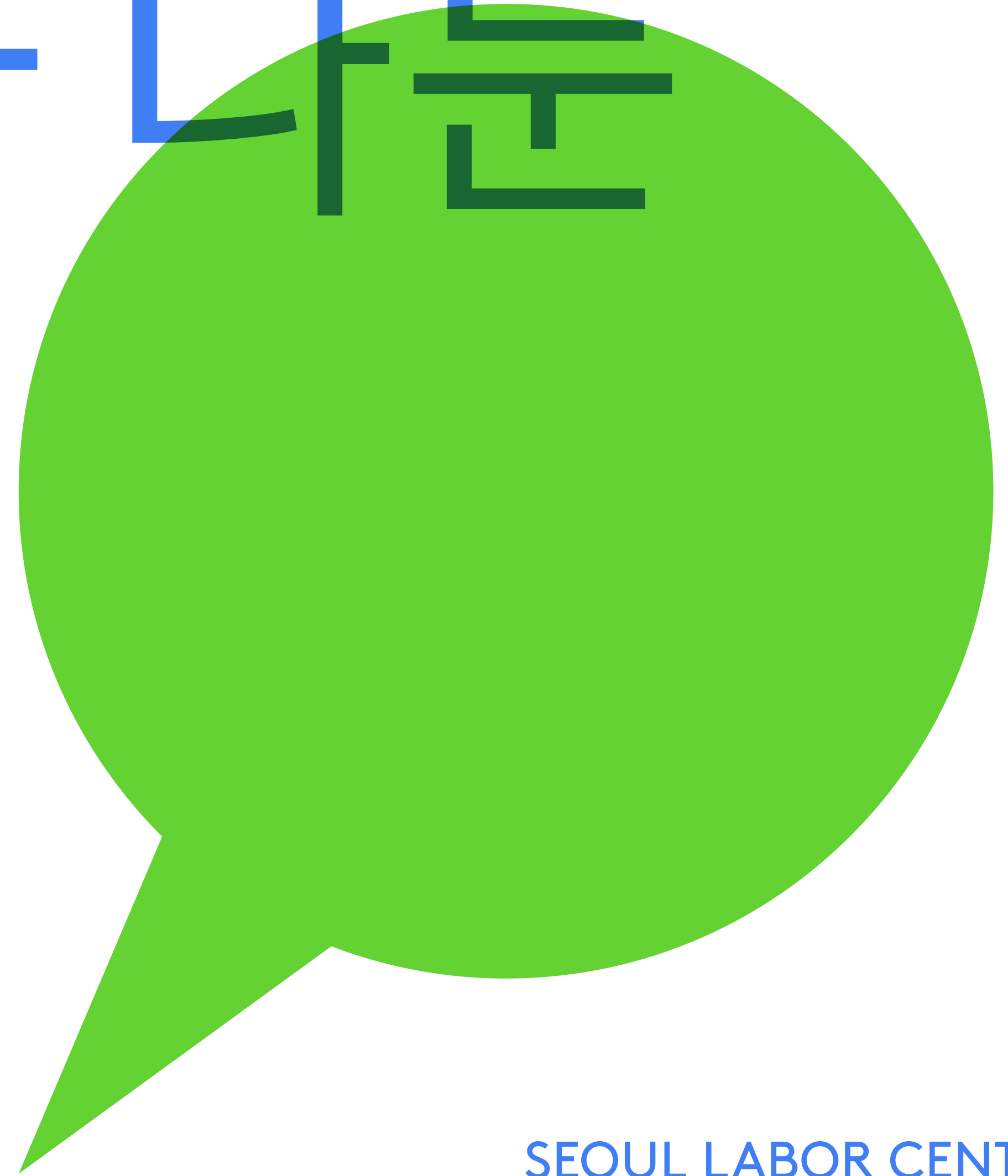


서울시민과 나누는

노동상담

2020



SEOUL LABOR CENTER

1

2015-2020

노동상담 현황



🏠 참여센터 ■ 상담건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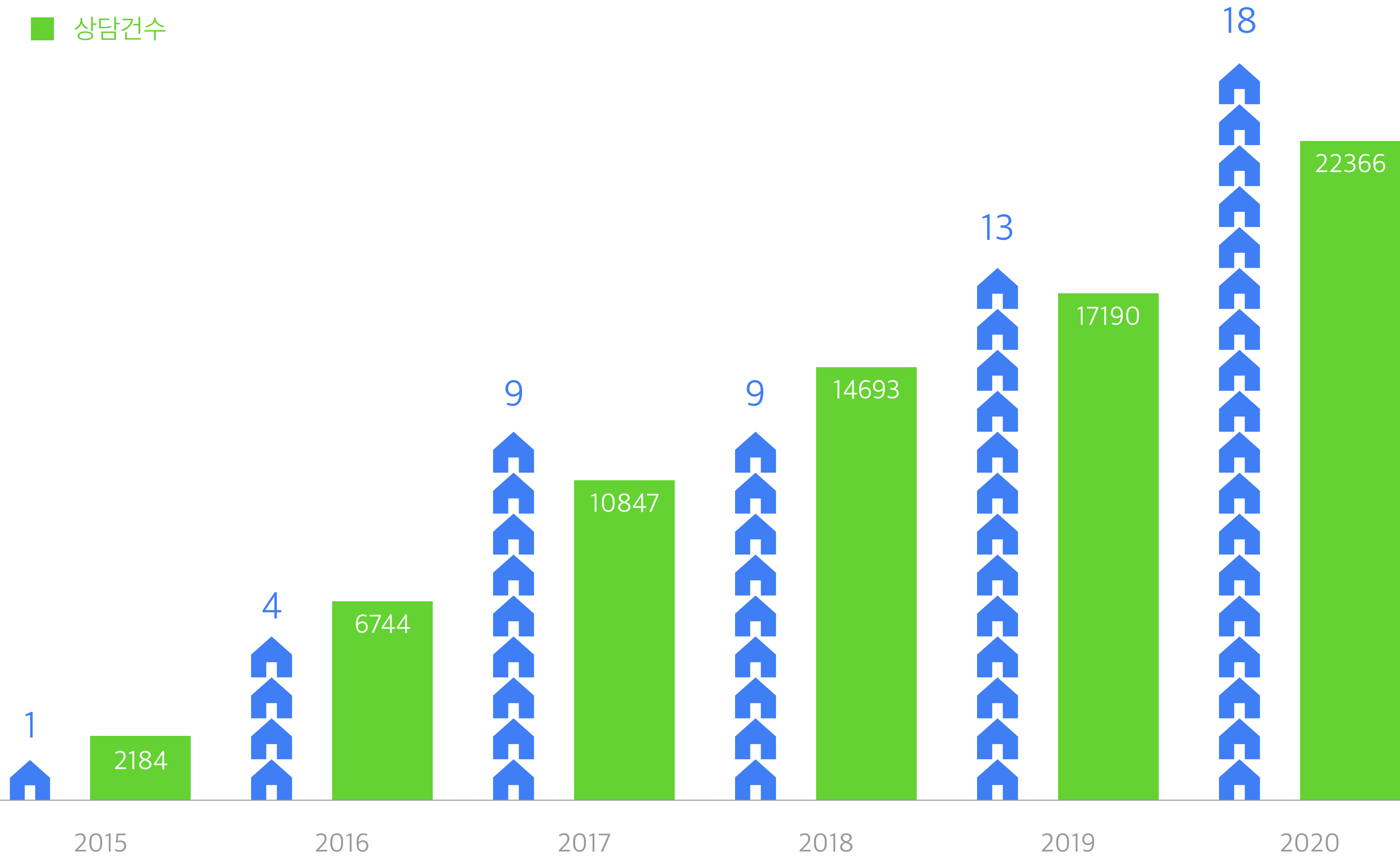


2015

2015년 서울노동권익센터는
2,184건의 노동상담을 했습니다.

2,184 건

🏠 참여센터 🟩 상담건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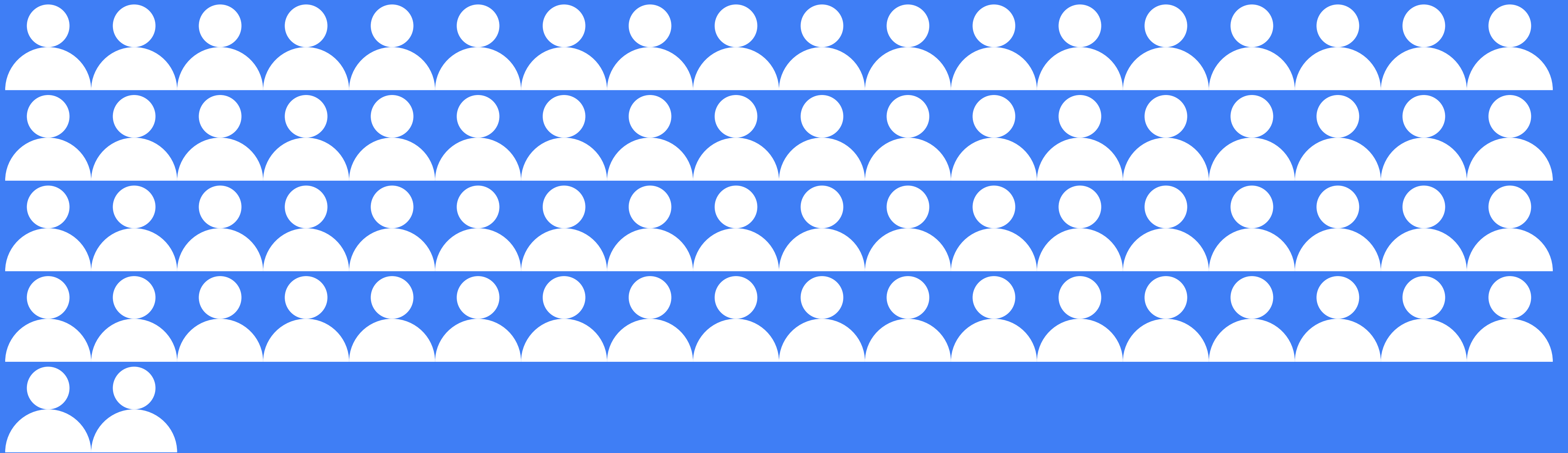
자치구·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확장되면서
5년이 지난 2020년, 18개의 센터에서 총 22,366건의 노동상담이 진행되었고,



18 센터

22,366 건

5년간 총 74,024명의 서울시민과 만났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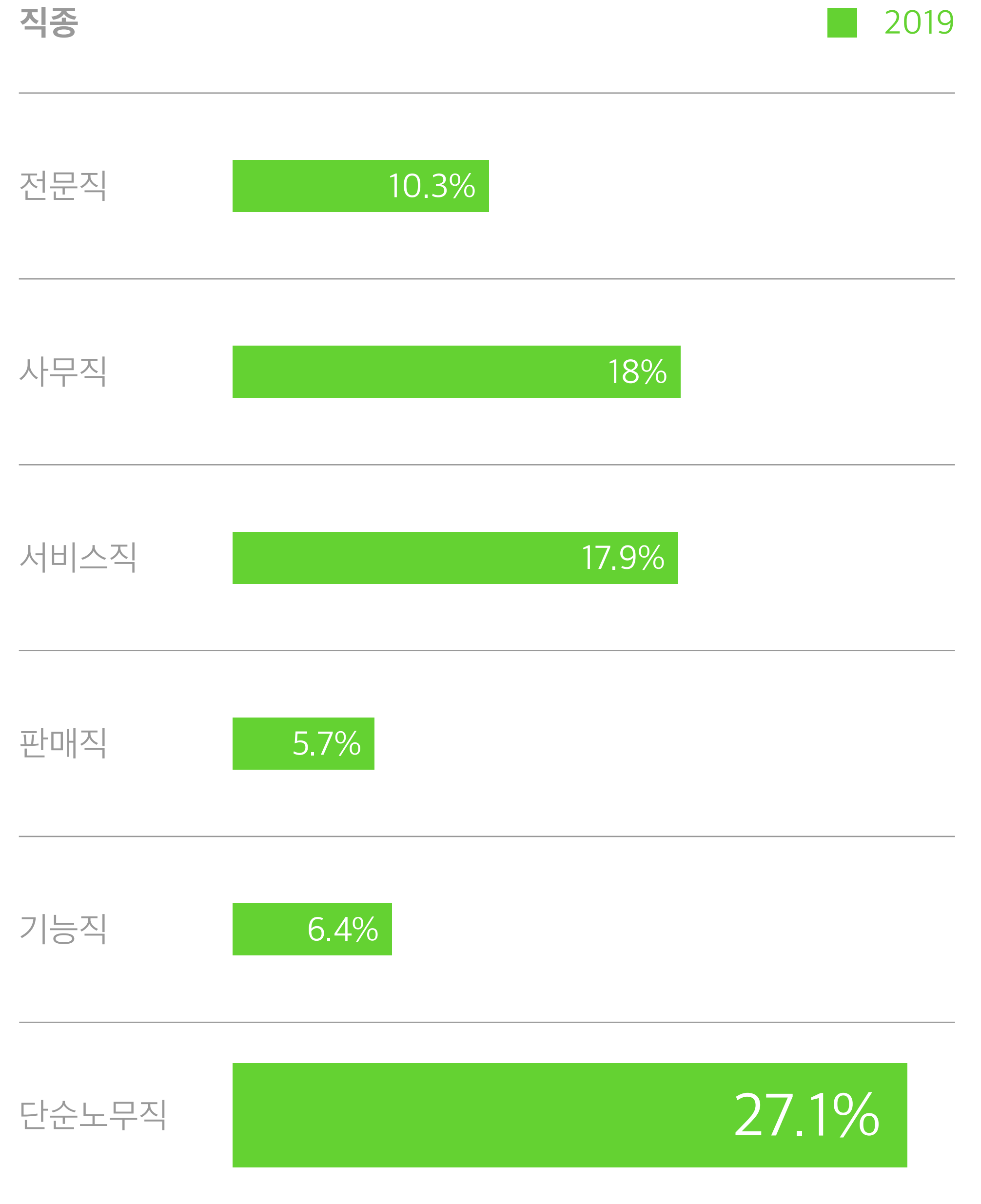
5년간 총 74,024명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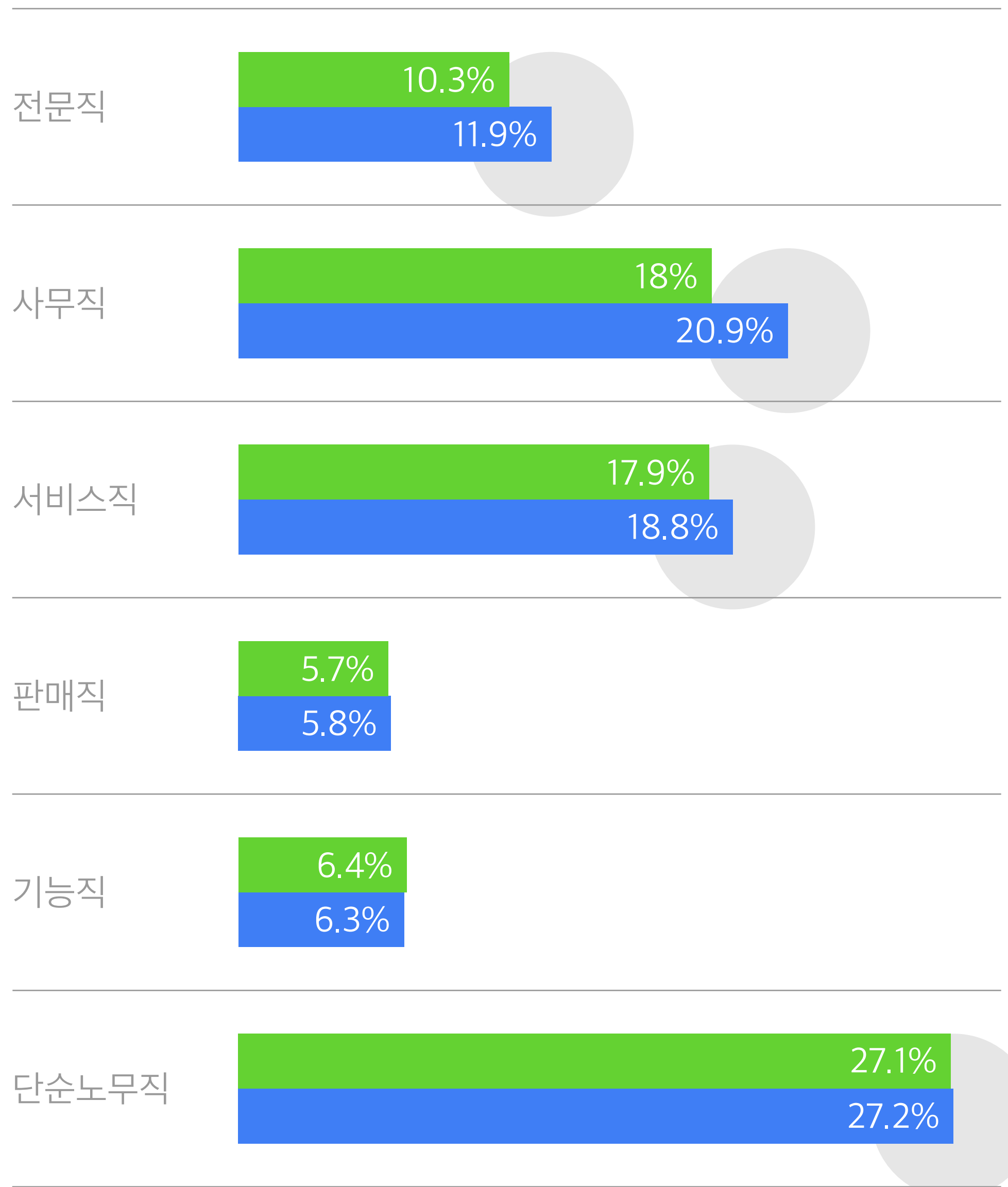
직종별 상담현황



매년 노동상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청소, 경비, 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이었습니다.



직종 ■ 2019 ■ 202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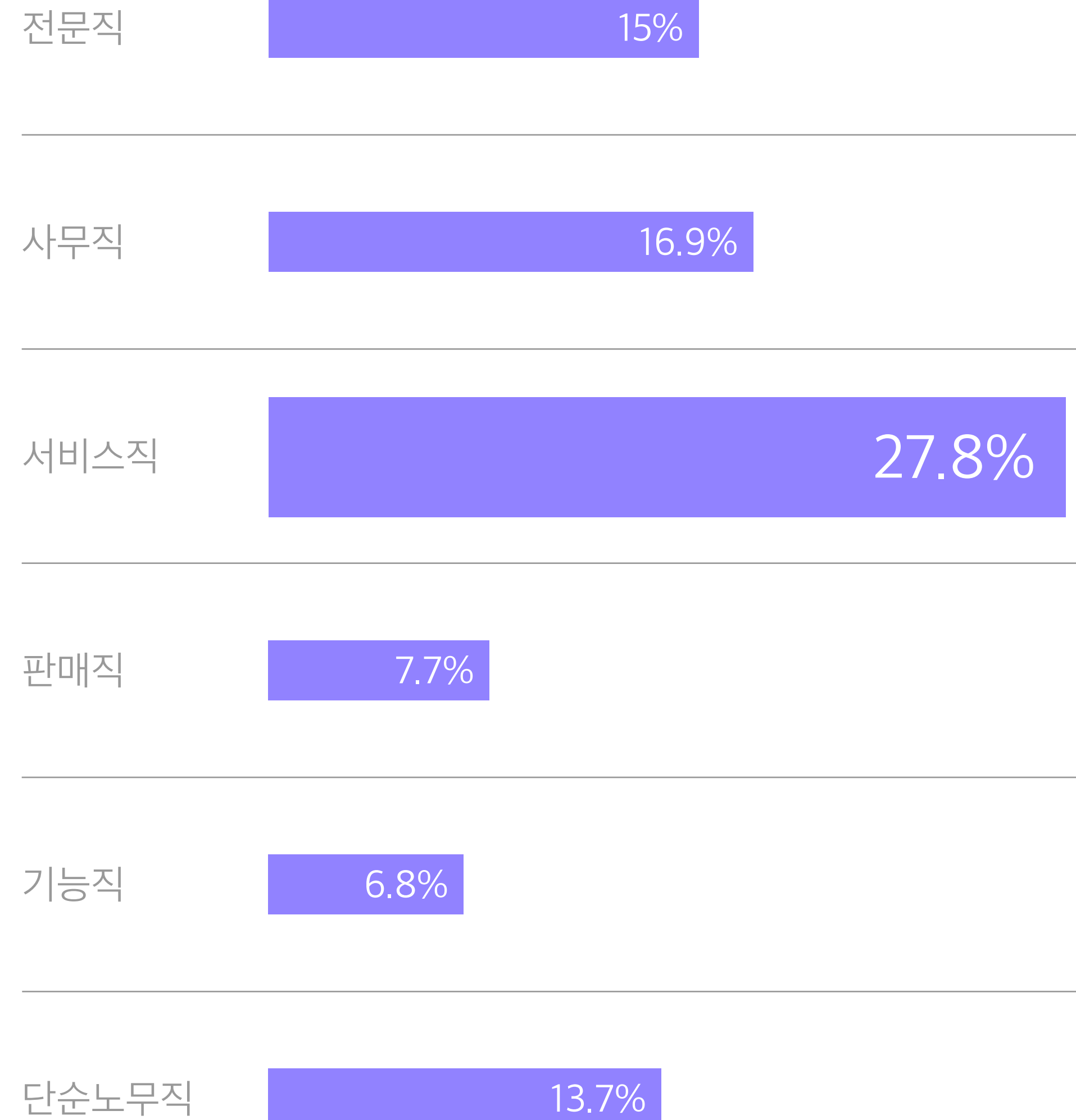
2020년 역시 단순노무 직종의 상담이 가장 많았으나, 전문가, 사무, 서비스 직종의 상담도 크게 증가했습니다.



☼ 코로나 상담에서는 서비스 직종의 상담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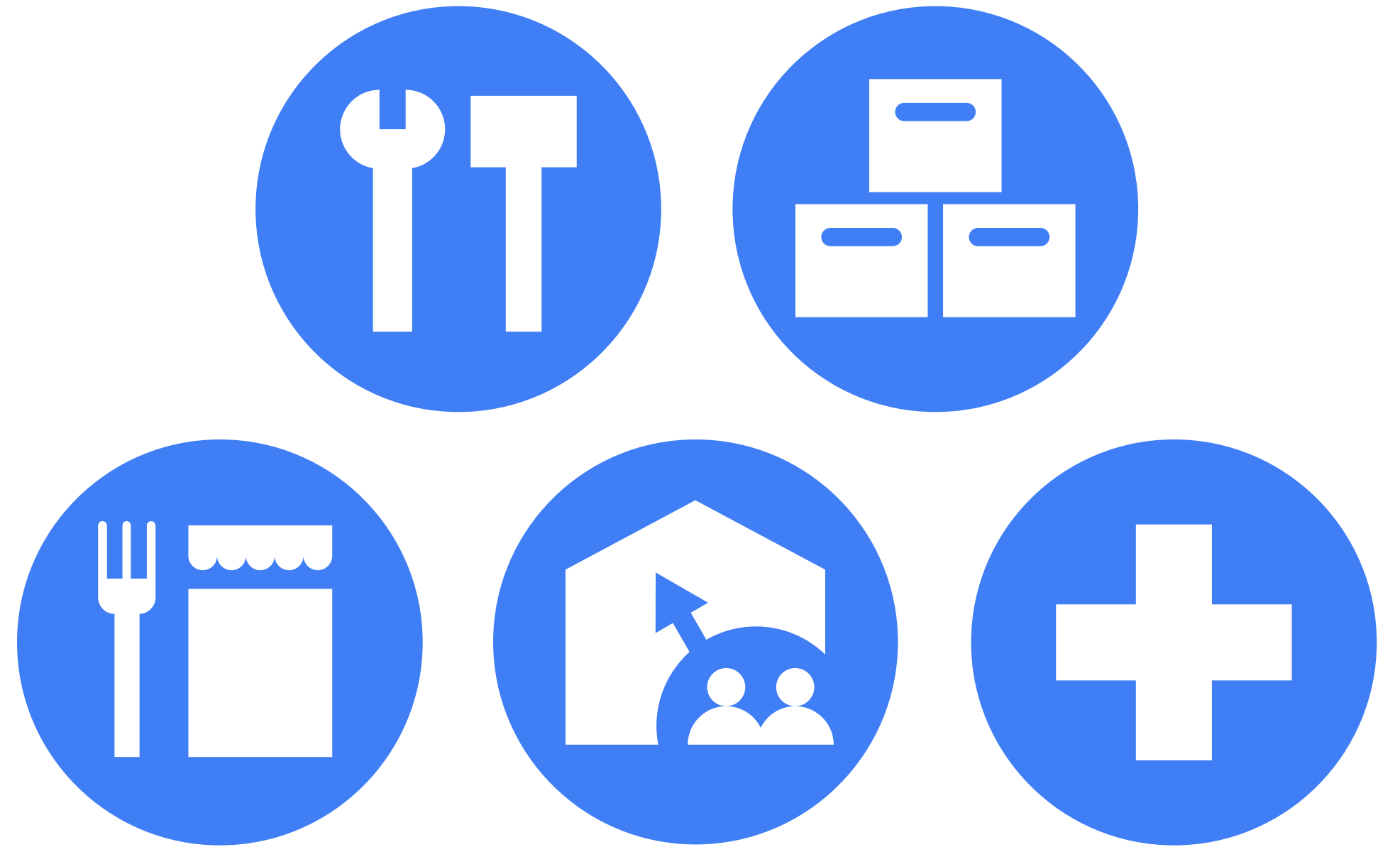


직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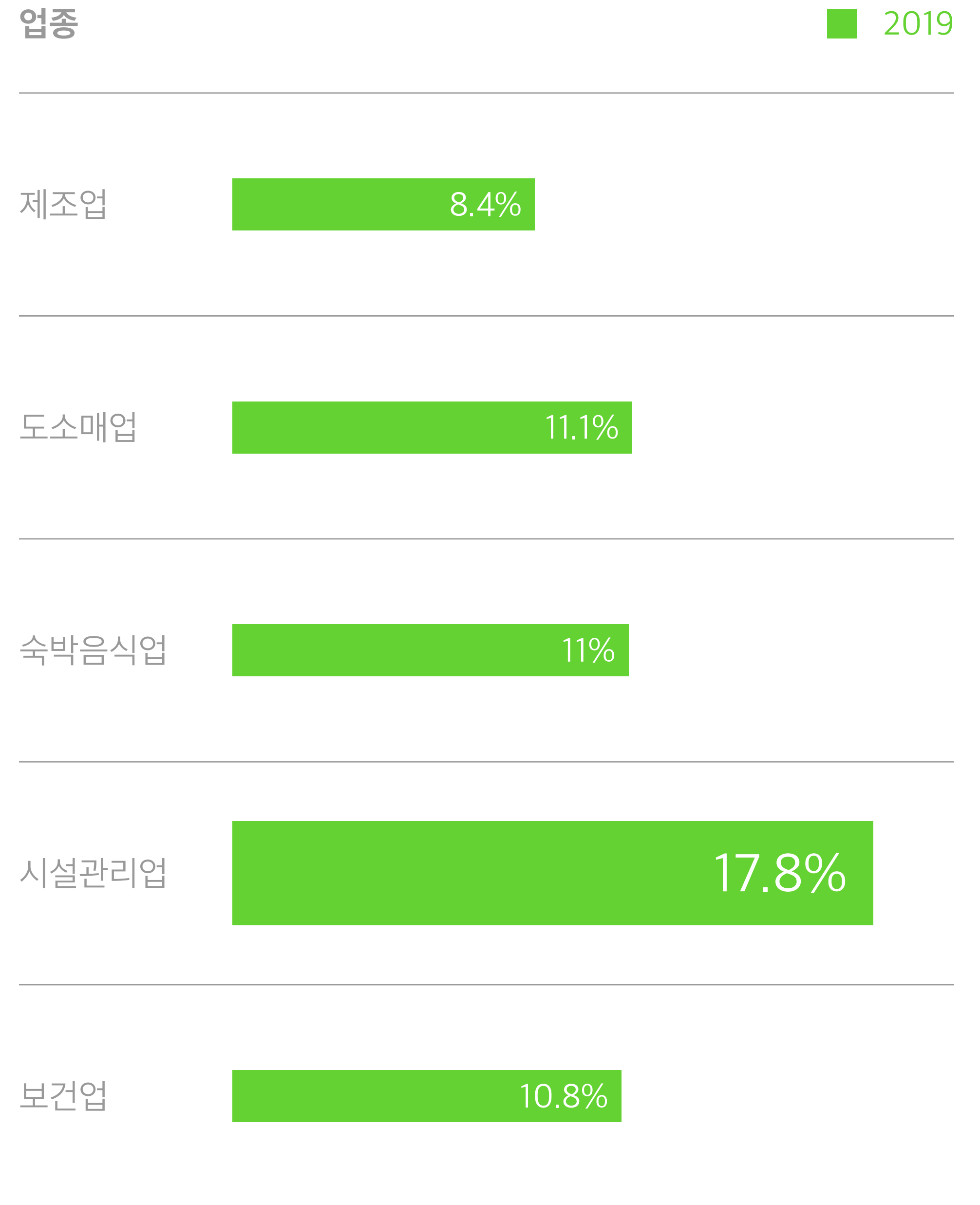
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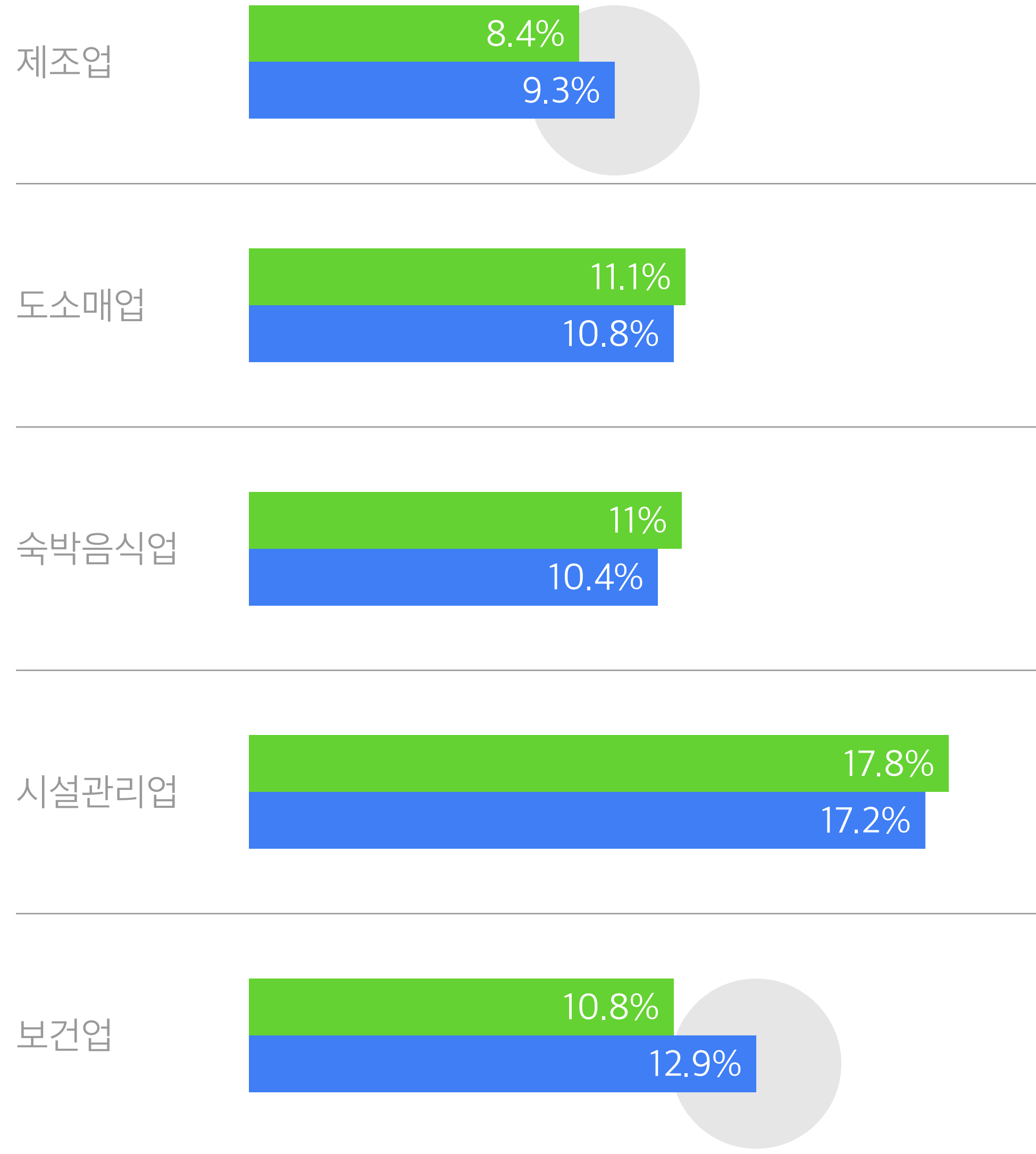
업종별 상담현황



업종에서는 청소, 경비, 주차관리 등
용역업체가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업
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.



업종 ■ 2019 ■ 202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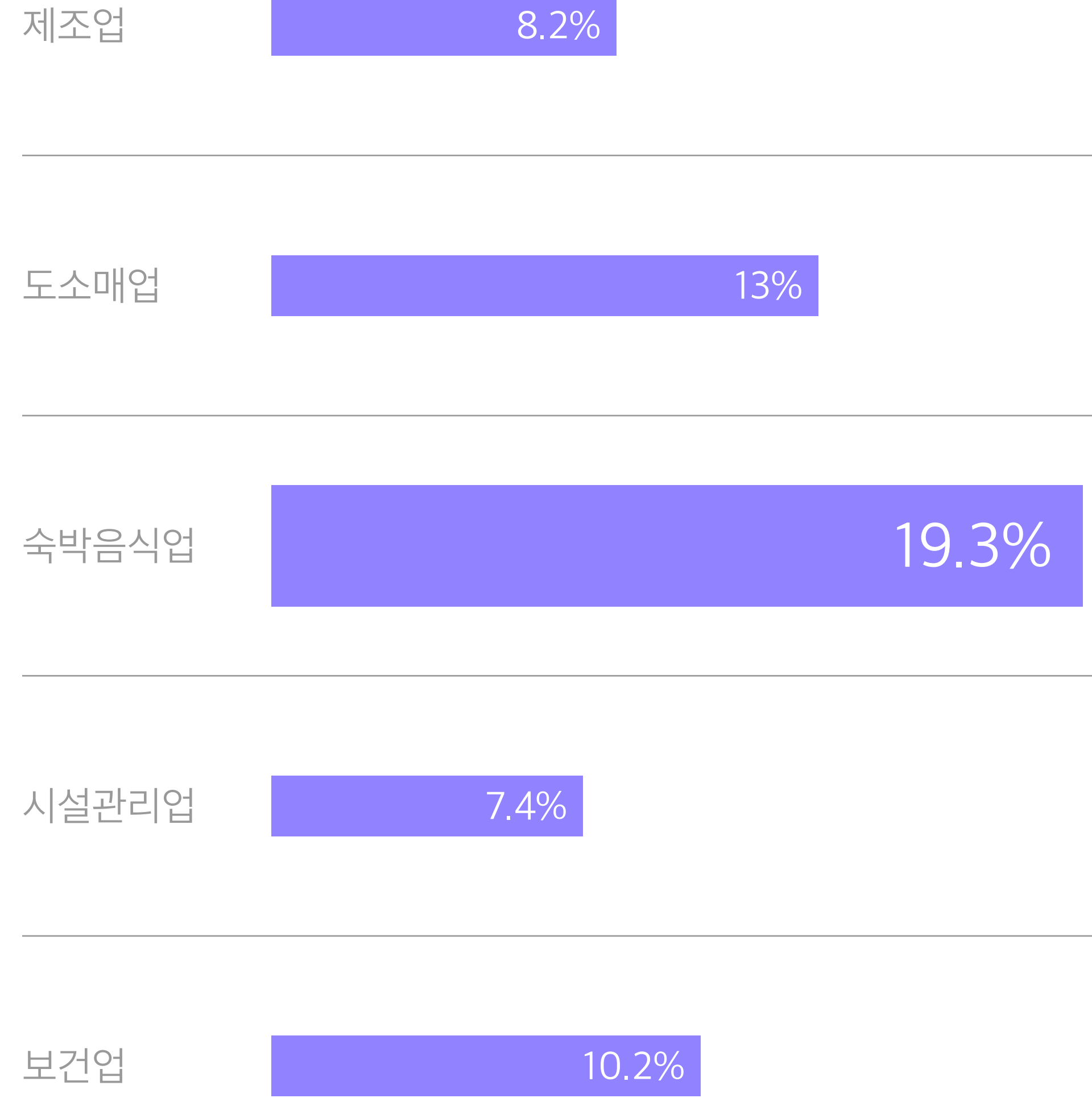
2020년에는 다른 업종의 상담이 소폭 감소한 것에 비하여 제조업과 보건업 상담이 증가했습니다.



☼ 코로나 상담에서는 숙박음식업과
도소매업, 보건업 순으로 상담이
이루어졌으며,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
어려움이 숙박음식업에 집중되었음을
알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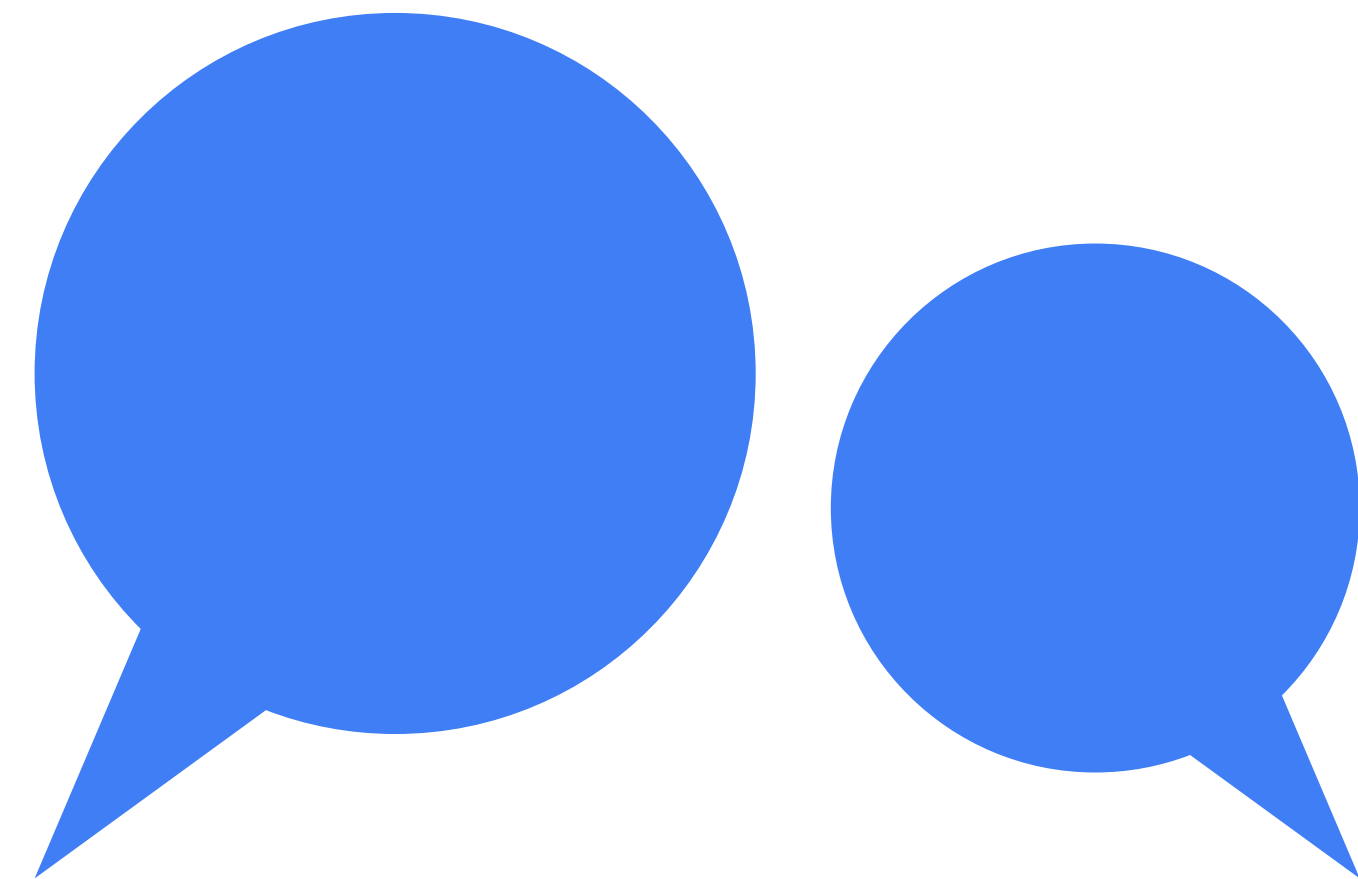


업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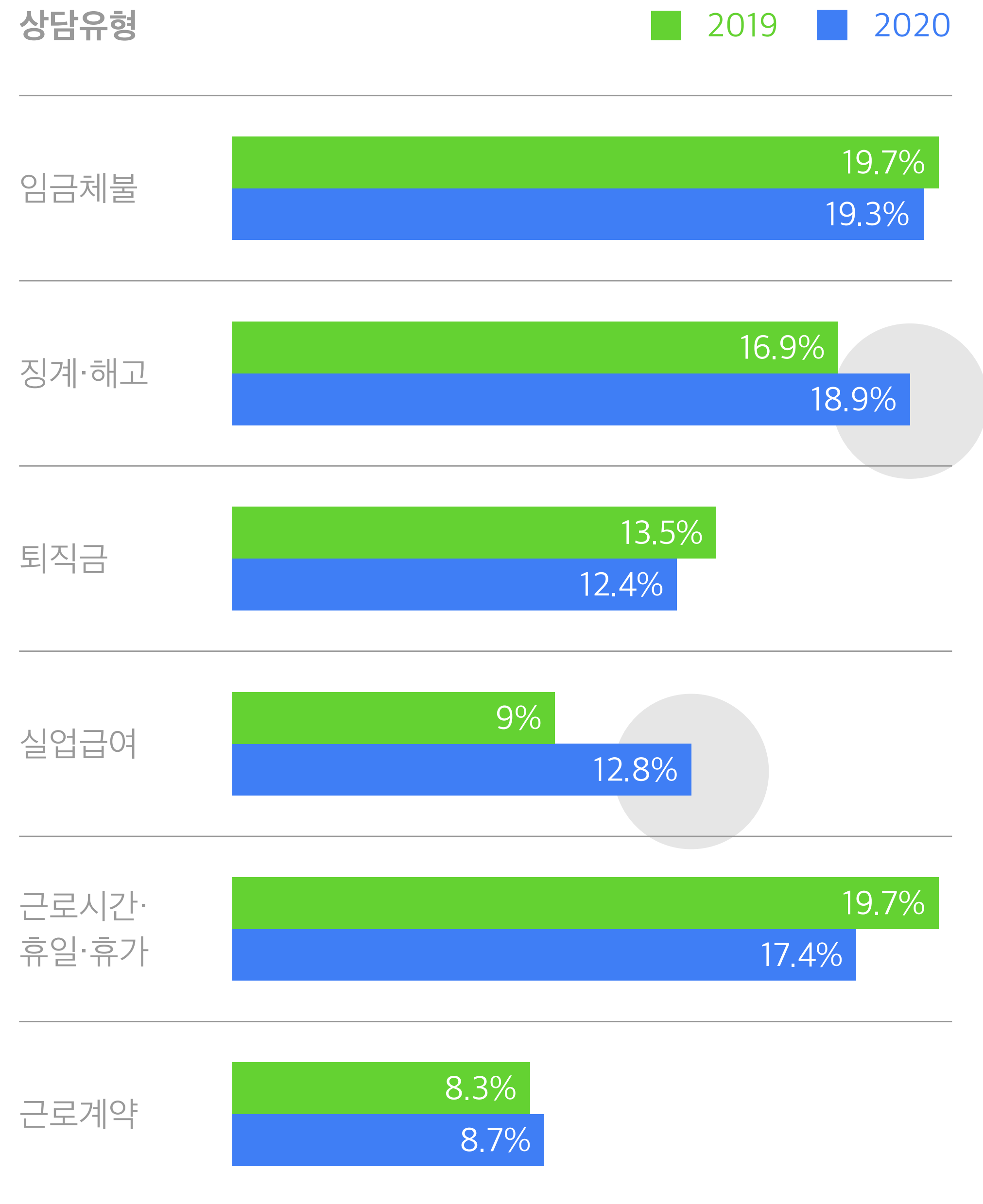


4

상담유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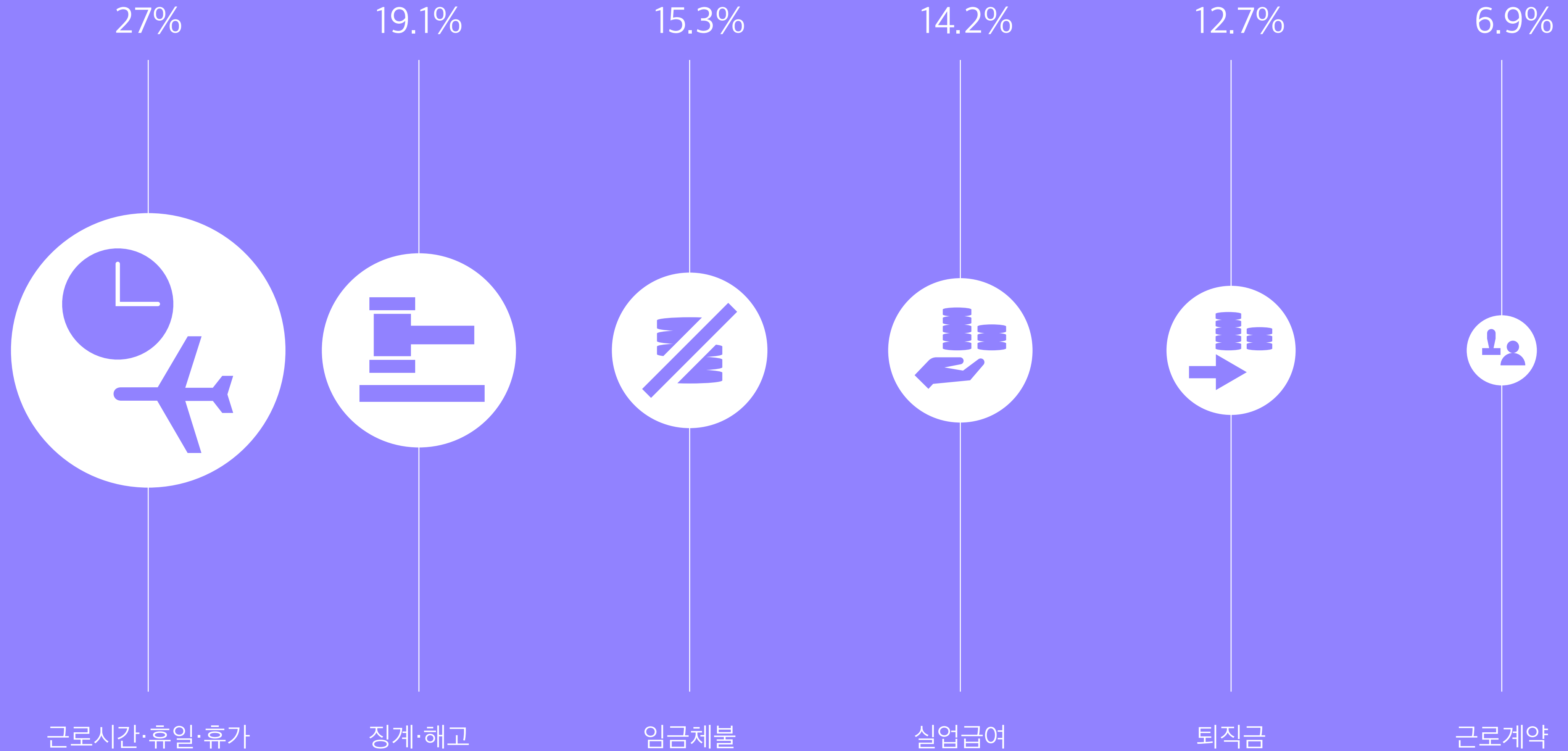
2020년은 징계·해고와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.



최저임금이나 산업재해에 관련된 상담비중은 감소한 반면
직장내 성희롱, 폭언과 폭행 등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은
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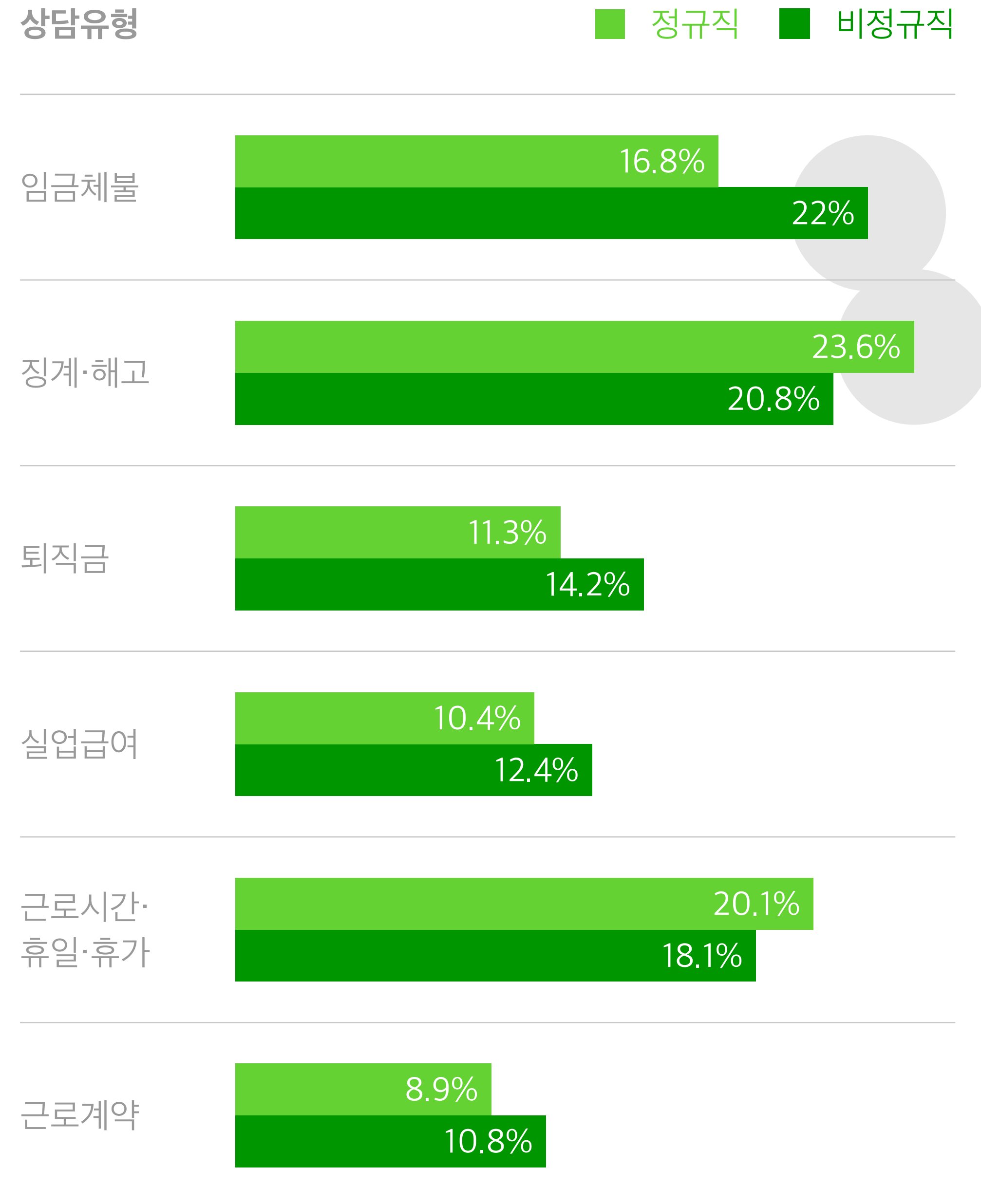
☼ 코로나 상담으로는 근로시간·휴일·휴가, 징계·해고, 임금체불 순으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.



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징계·해고에 관한 상담을 가장 많이 한 반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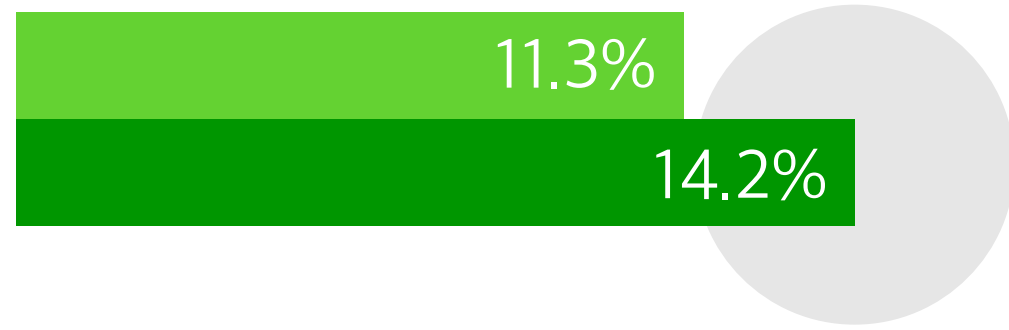
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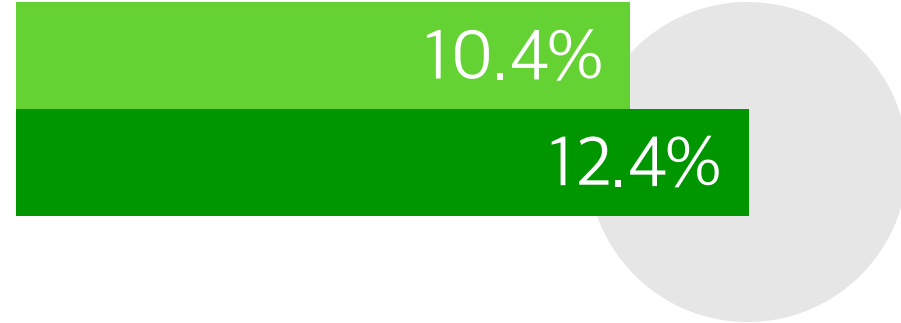
상담유형

■ 정규직 ■ 비정규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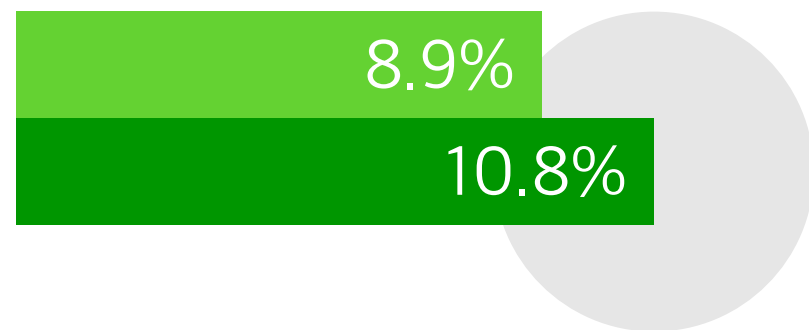
퇴직금



실업급여



근로계약



그 외 상담유형 중 근로시간·휴일·휴가를 제외한 퇴직금, 실업급여,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비중이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.



상시근로자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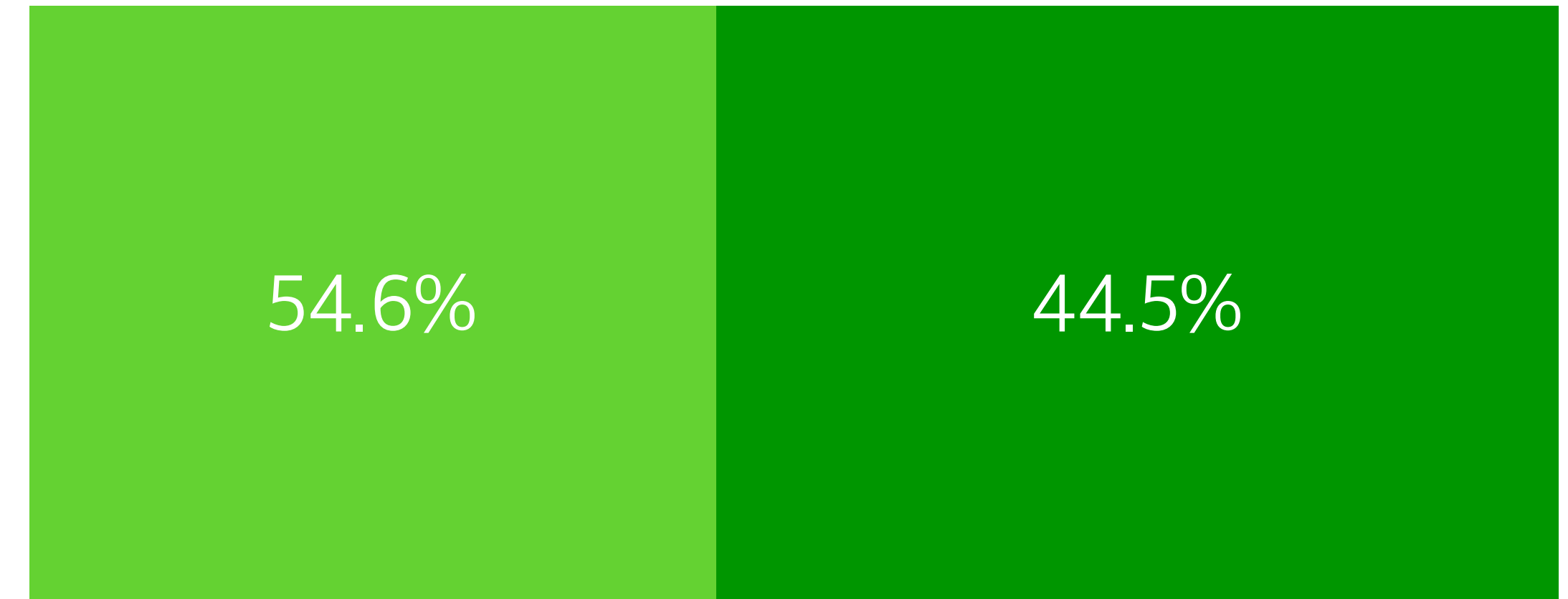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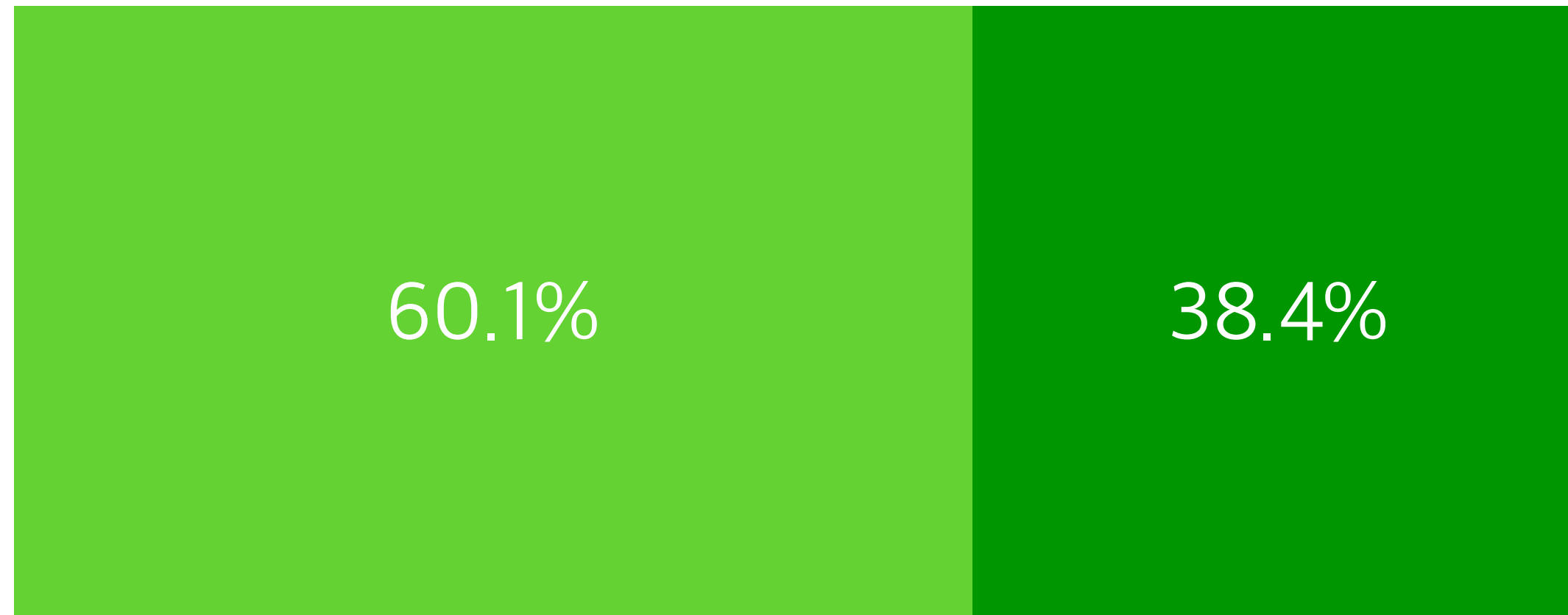


30인 미만

30인 이상

상시근로자 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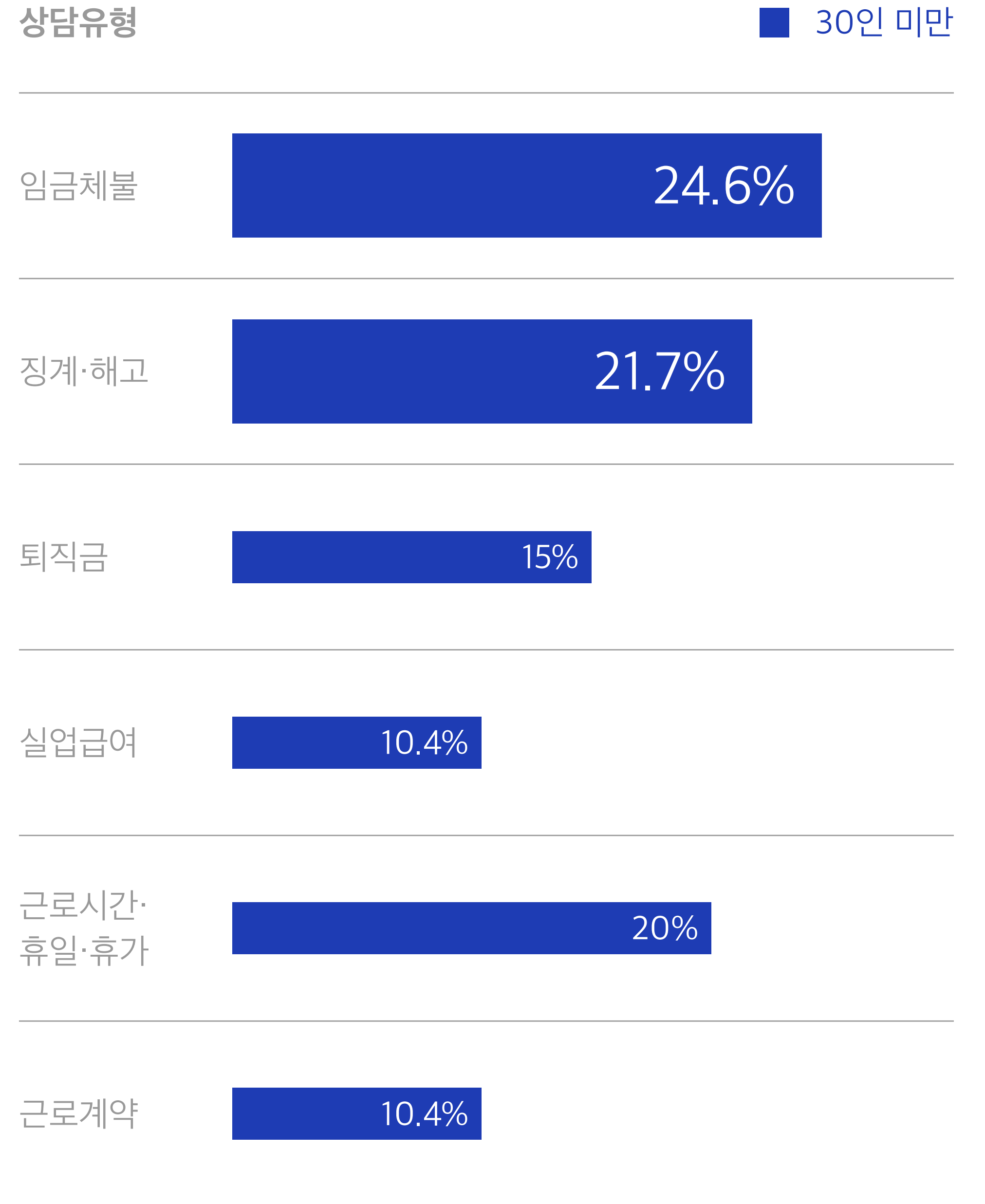
■ 정규직 ■ 비정규직



30인 미만

30인 이상

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
근로하는 노동자는 임금체불과 징계·해고에
대한 상담을 많이 했고,



상담유형

■ 30인 이상

임금체불 12.6%

징계·해고 27%

퇴직금 8.1%

실업급여 8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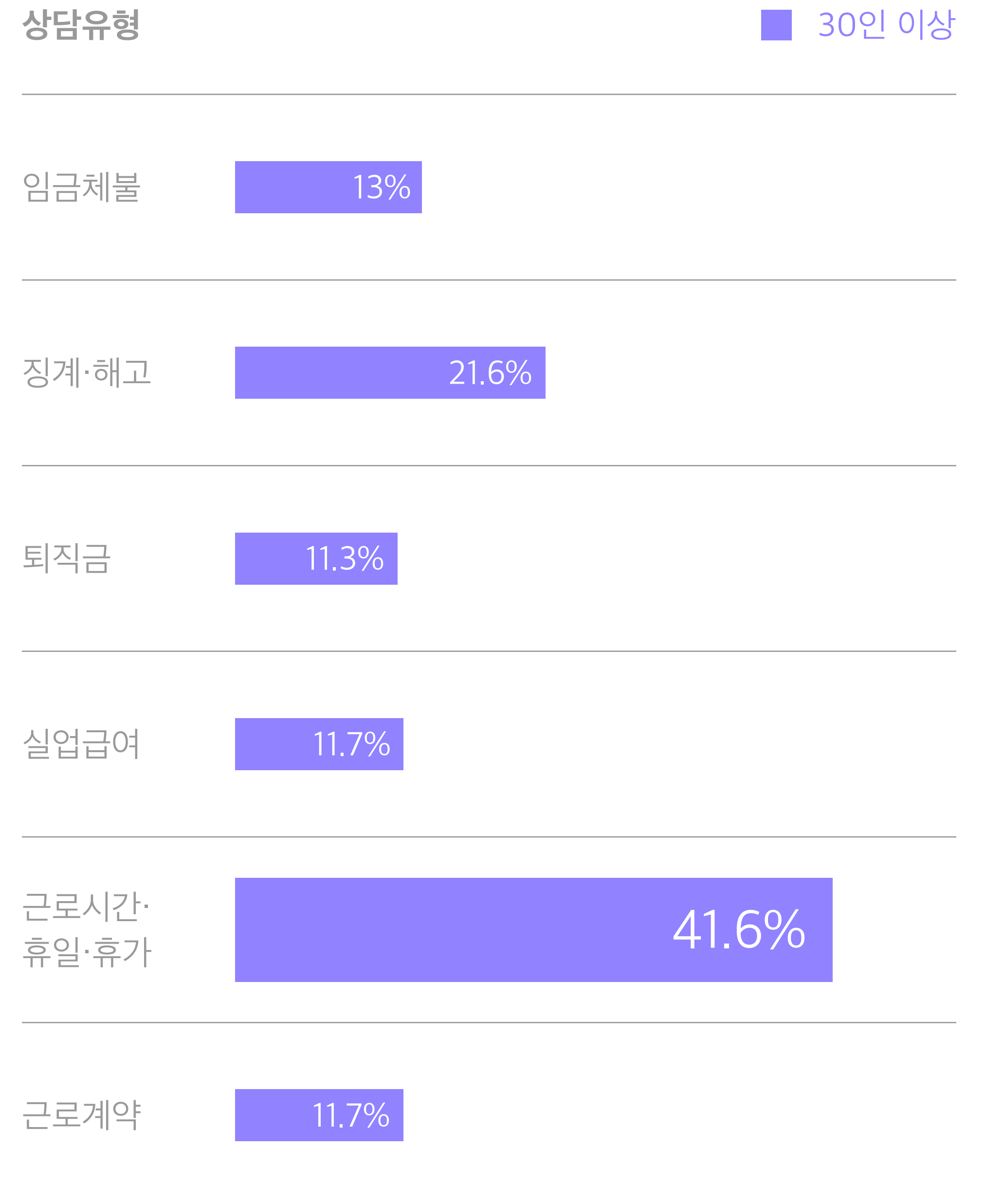
근로시간·
휴일·휴가 23.3%

근로계약 9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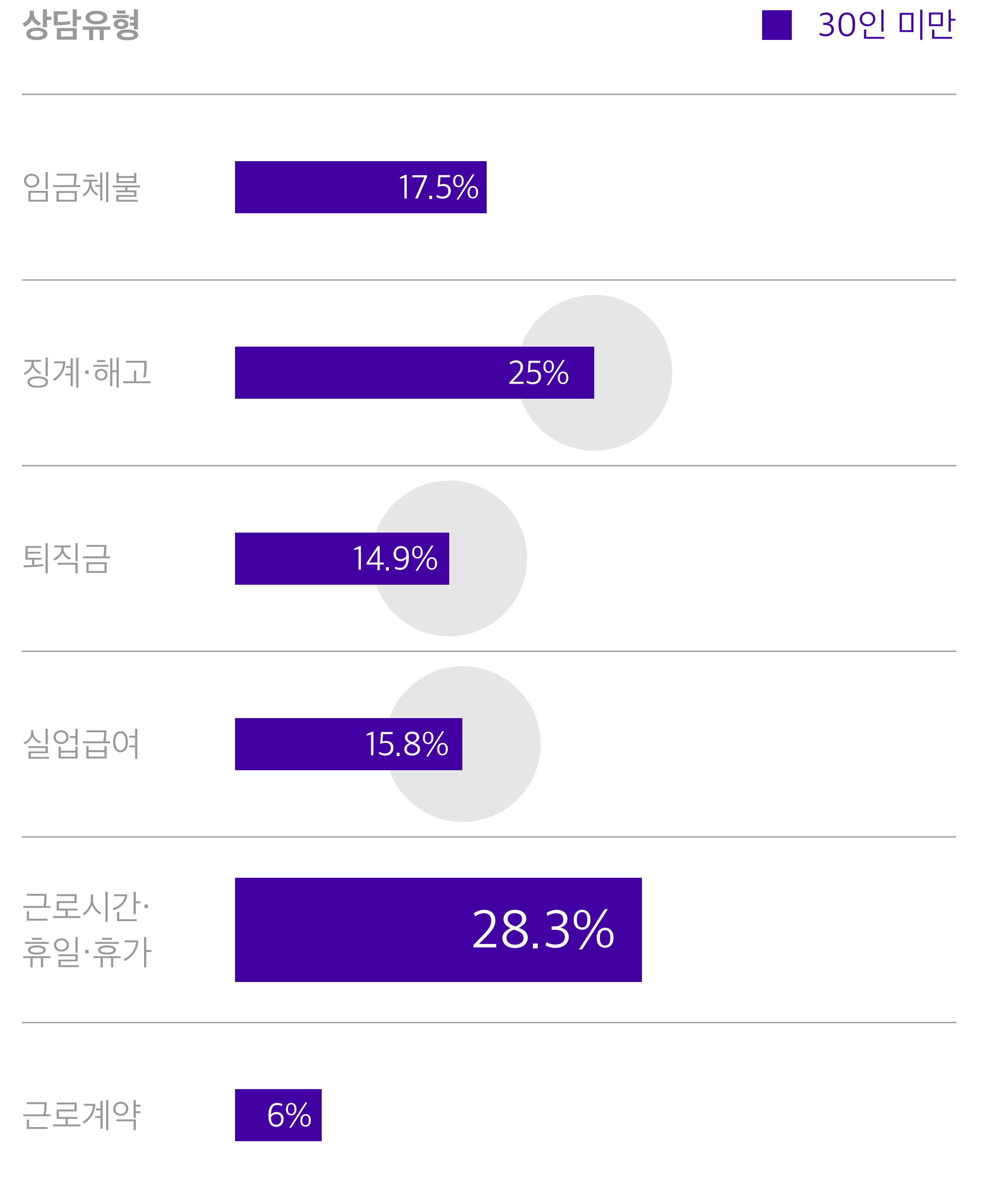
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
근로하는 노동자는 징계·해고와
근로시간·휴일·휴가에 대한 상담을
많이 했습니다.



☼ 코로나 상담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
근로하는 노동자는 근로시간·휴일·휴가에
대한 상담을 가장 많이 했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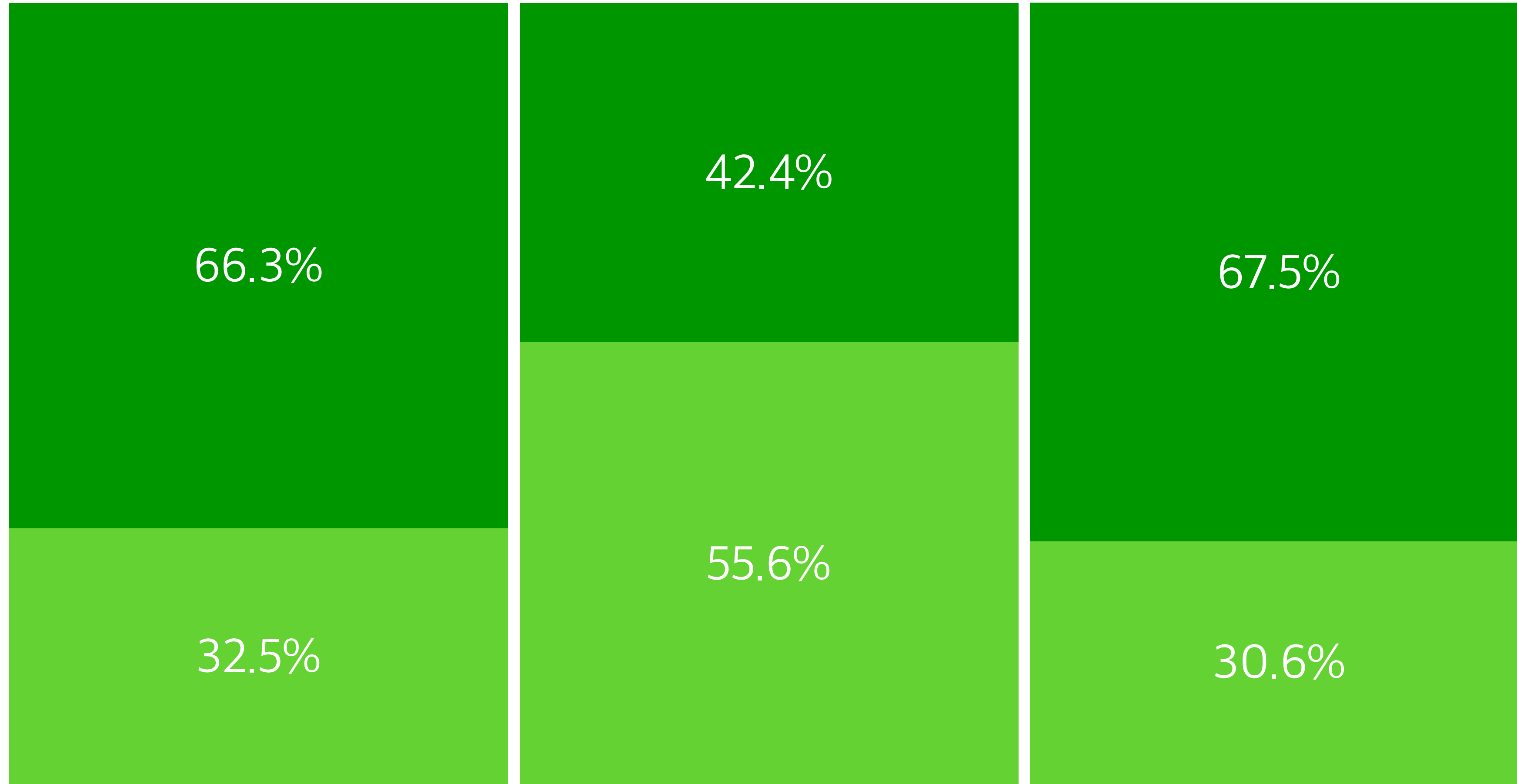


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
 노동자는 징계·해고, 실업급여, 퇴직금 등
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상담도 많이
 했습니다.



연령대

■ 정규직 ■ 비정규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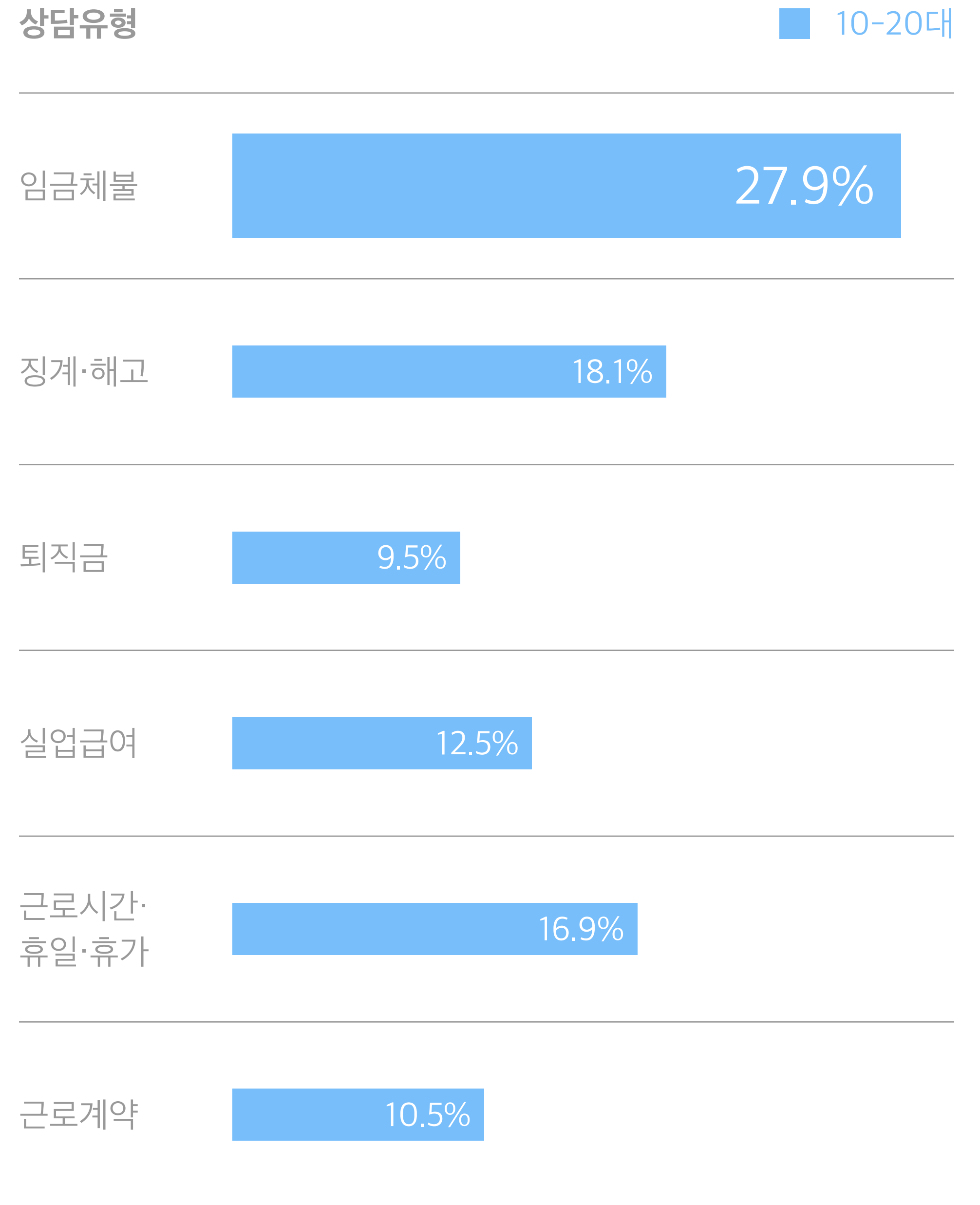


10-20대

30-40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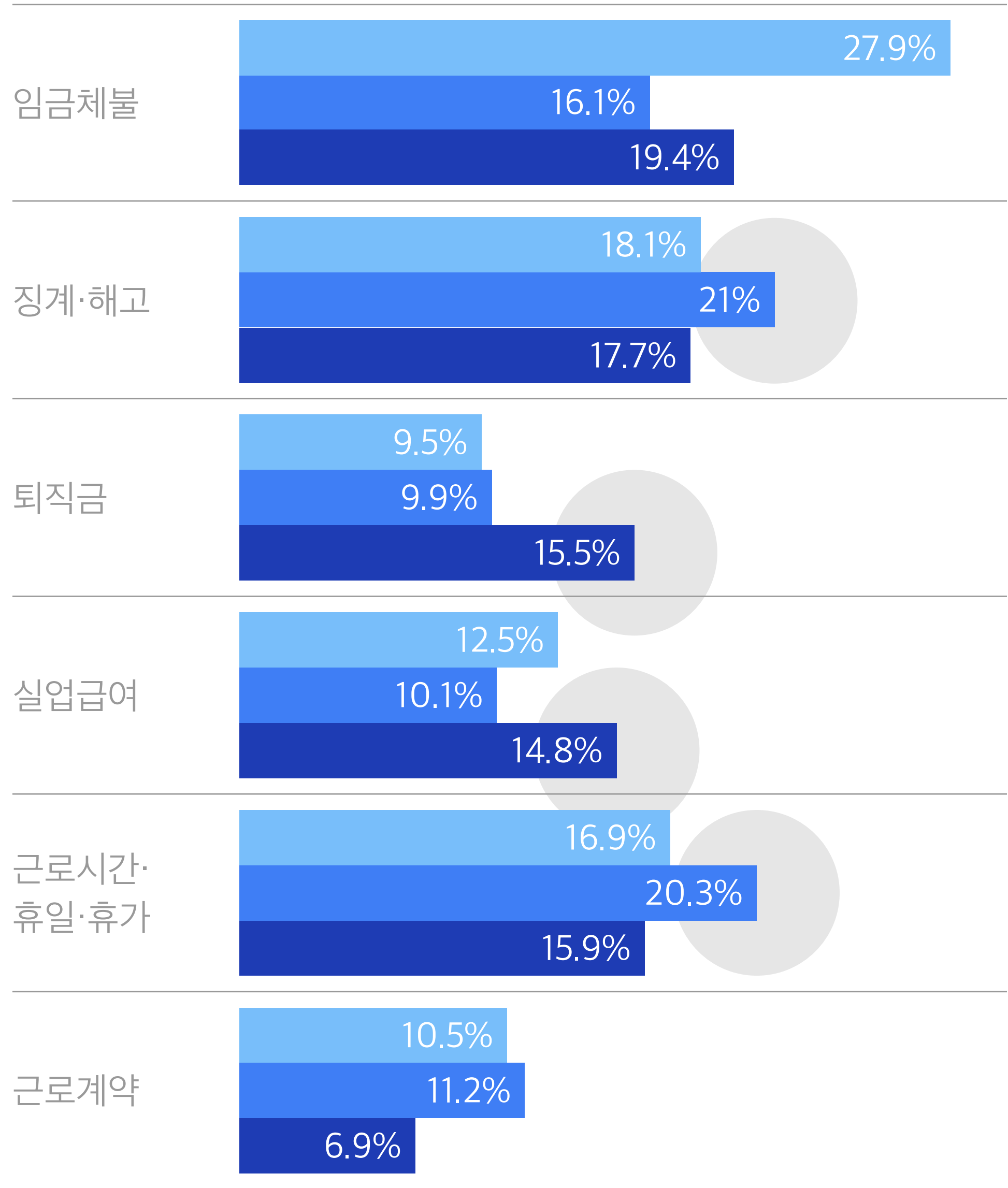
50대 이상

10-20대 노동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비중이 무척 높게 나타났습니다.



상담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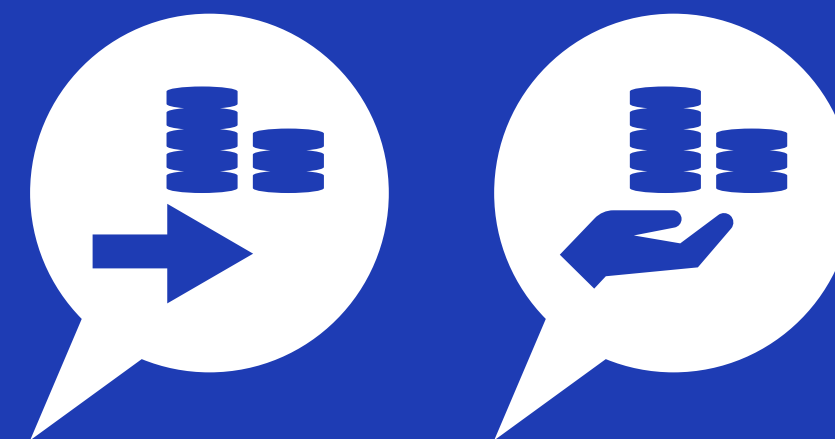
10-20대 30-40대 50대 이상



상대적으로 정규직이 많은 30-40대 노동자의 경우 징계·해고와 근로시간·휴일·휴가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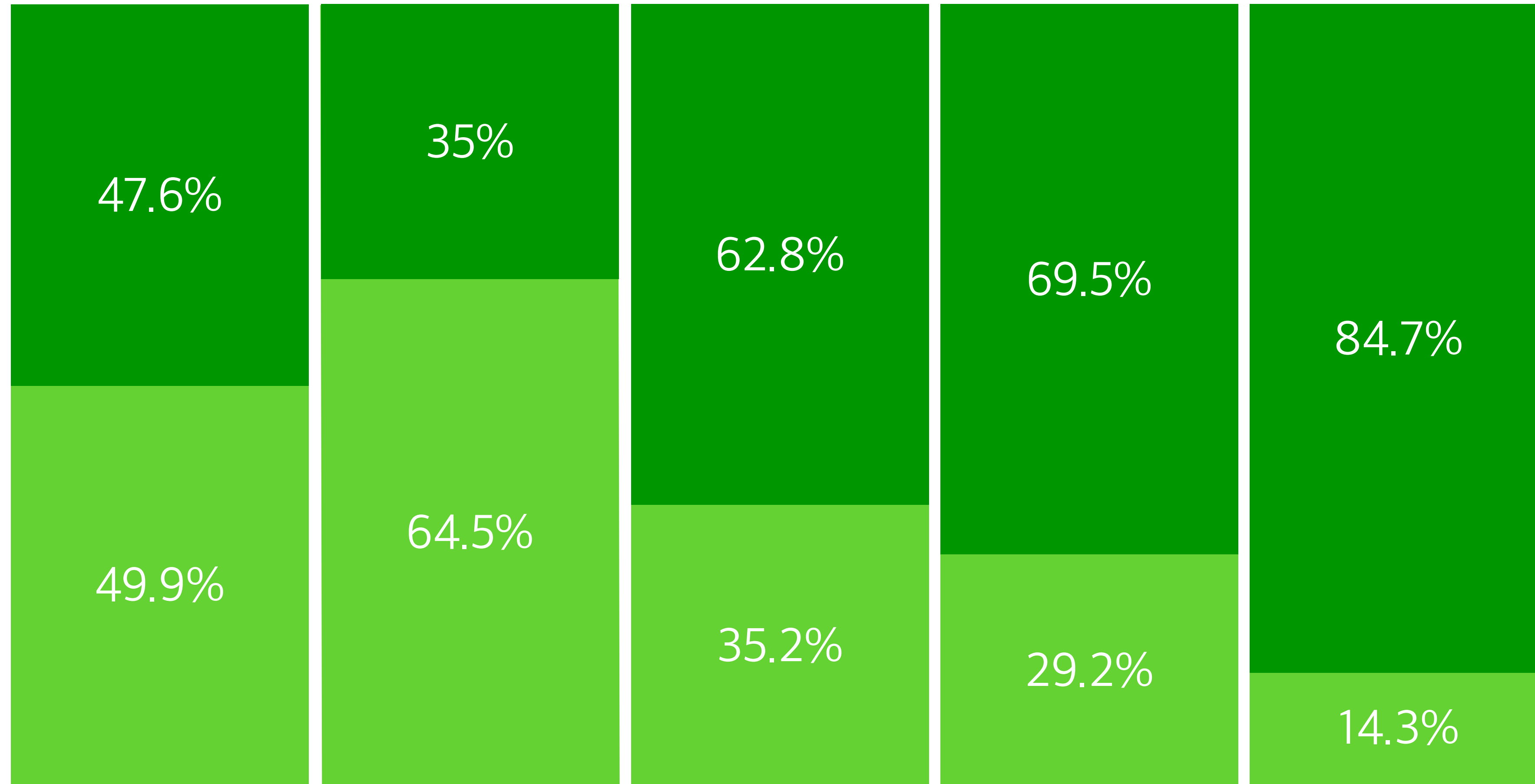


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50대 이상 노동자의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.



직종

■ 정규직 ■ 비정규직



전문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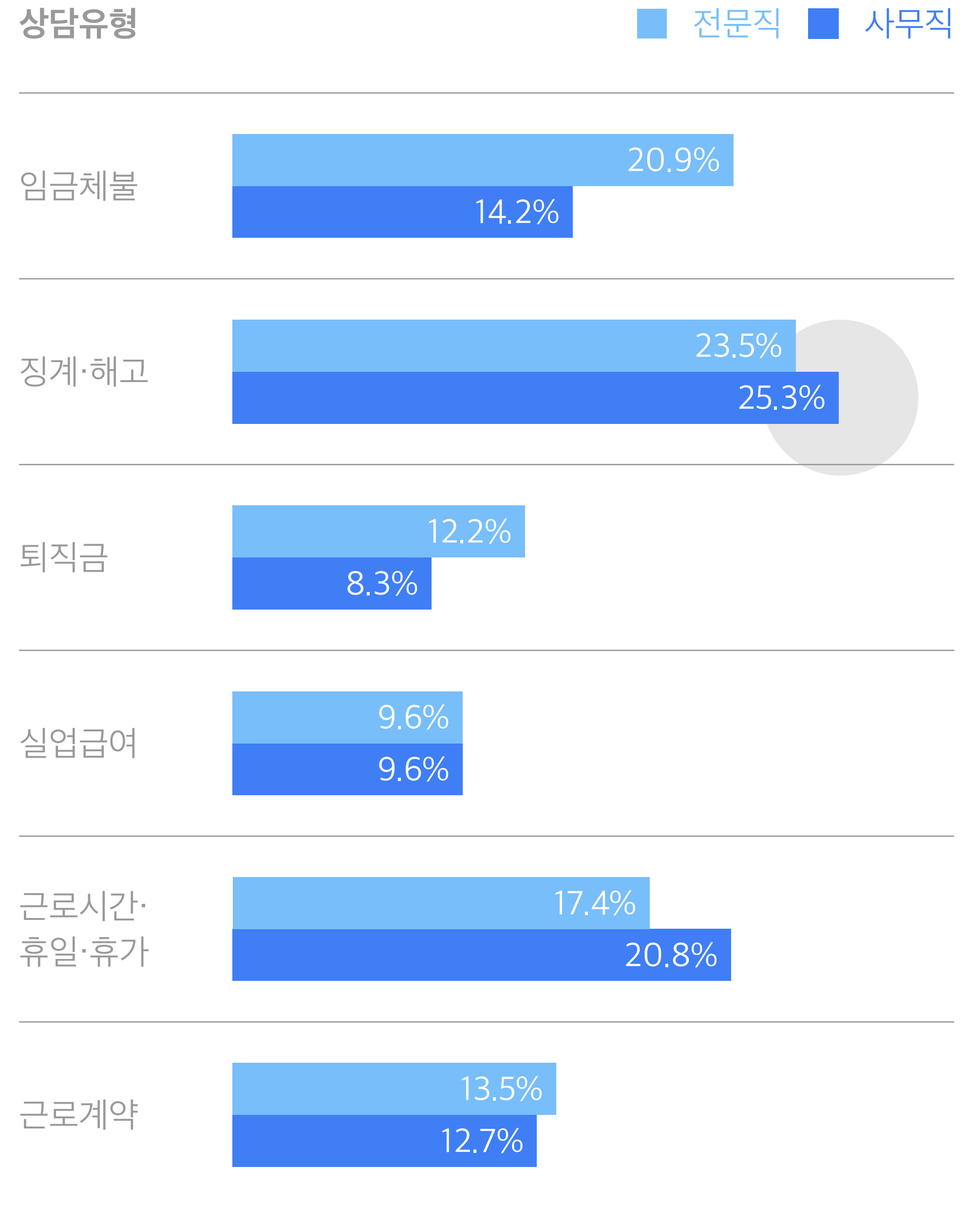
사무직

서비스직

판매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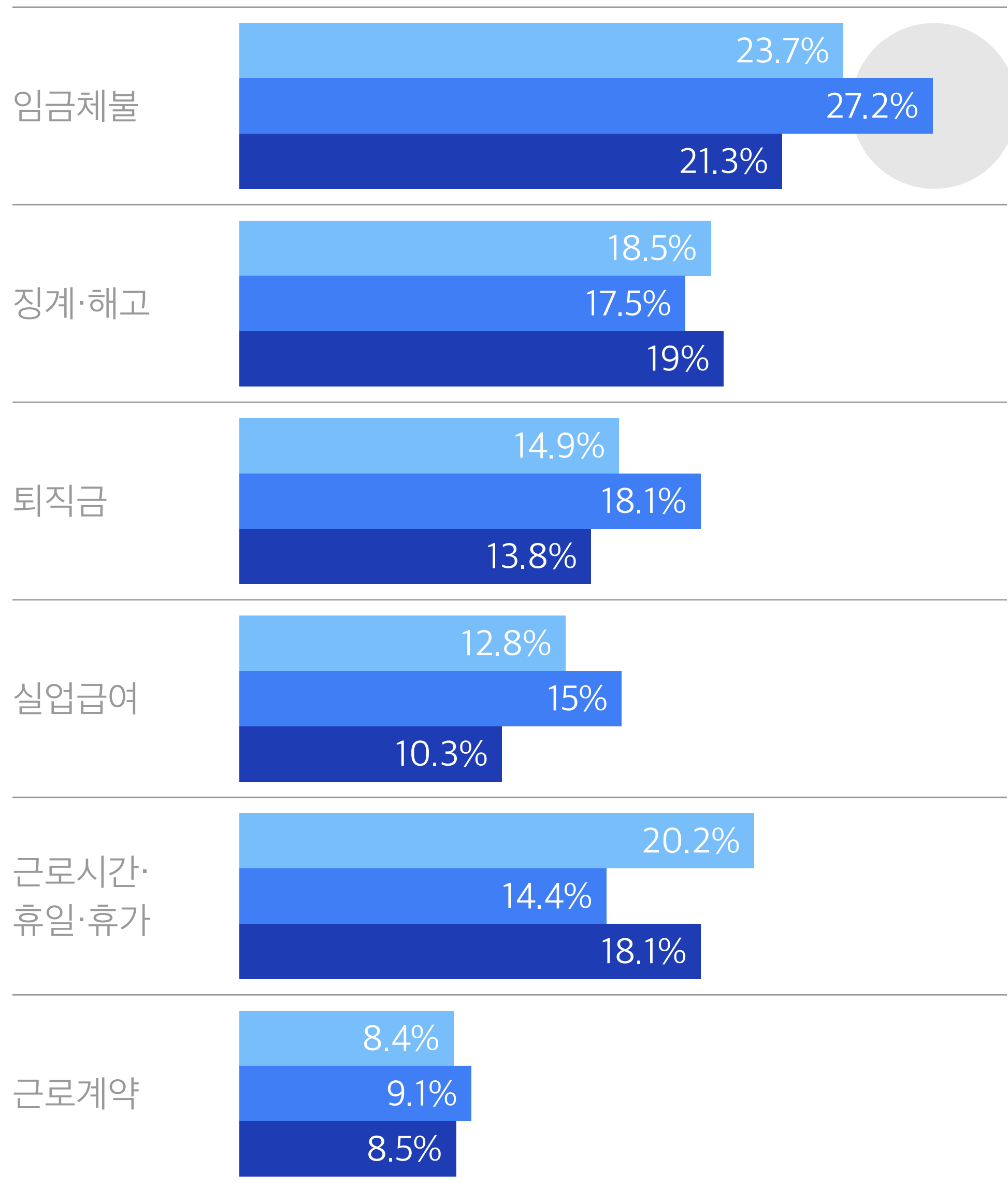
단순노무직

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는 징계·해고에 관한 상담을 가장 많이 했으며,



상담유형

■ 서비스직 ■ 판매직 ■ 단순노무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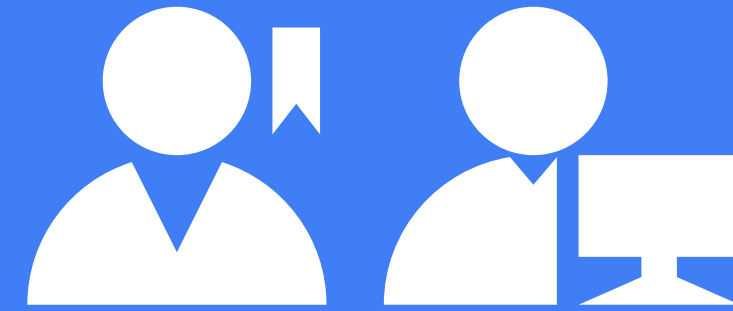
서비스직, 판매직,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.



전문직과 사무직 종사자는 상대적으로
정규직이 많았고,

서비스직과 판매직, 단순노무직 종사자는
비정규직이 많았습니다.

평균 정규직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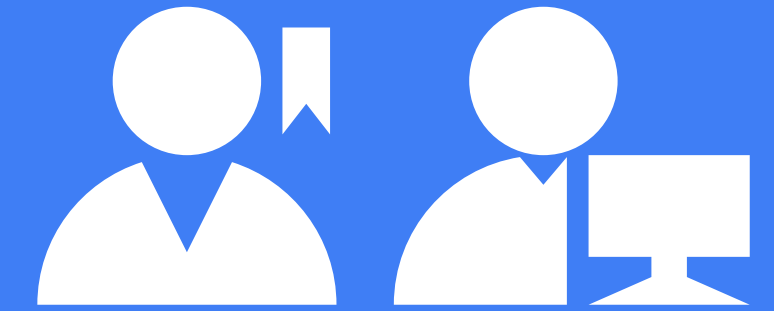


57.2%



26.2%

평균 비정규직 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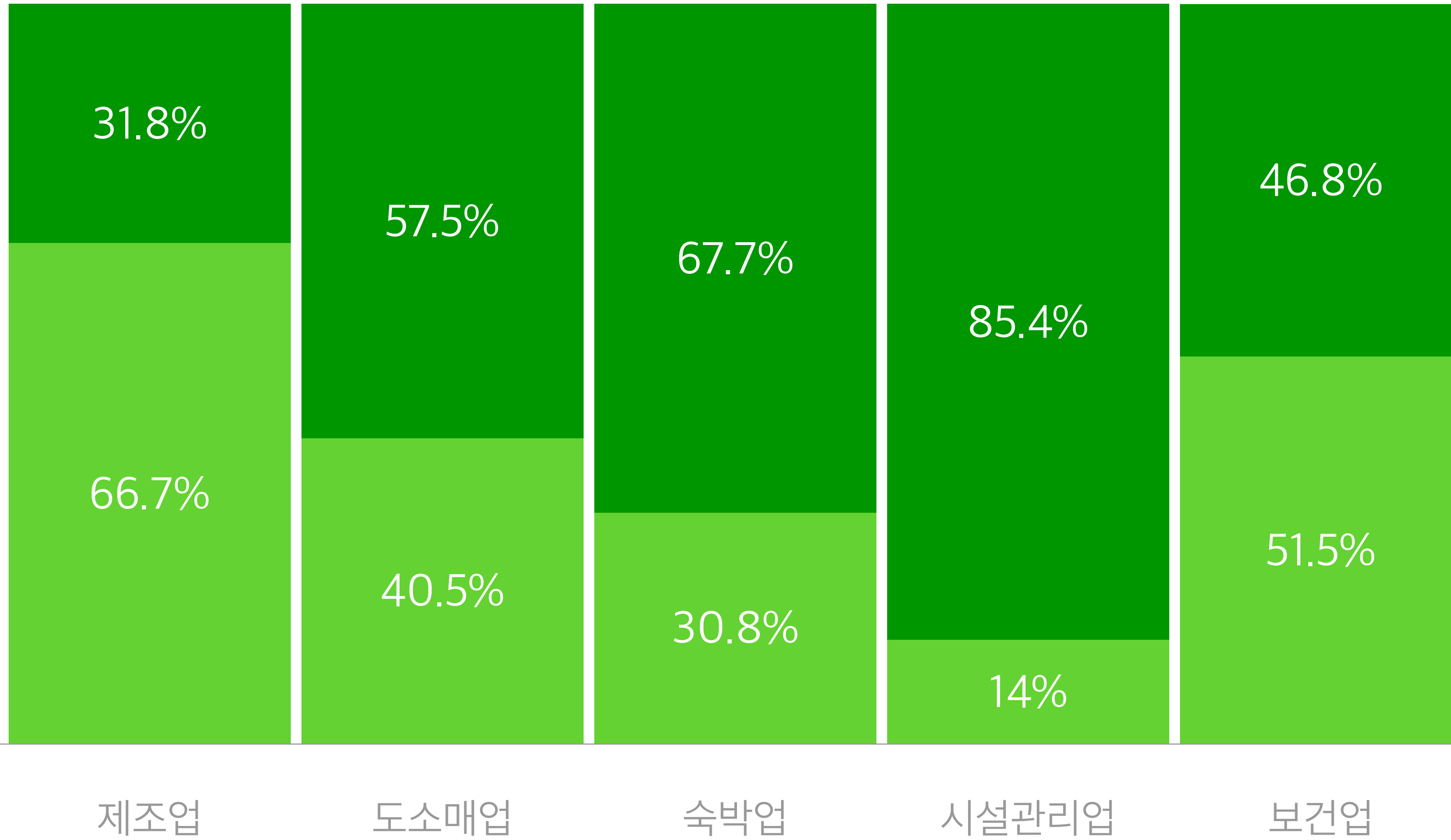
41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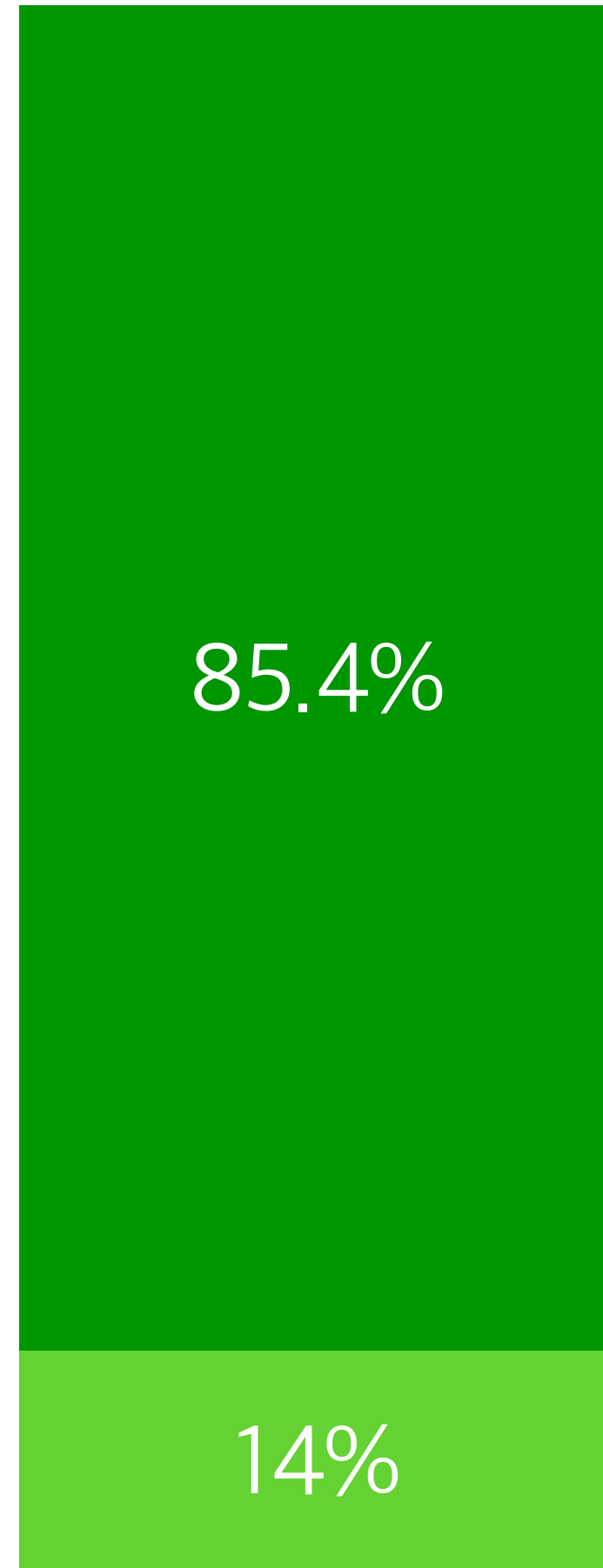


72.3%

업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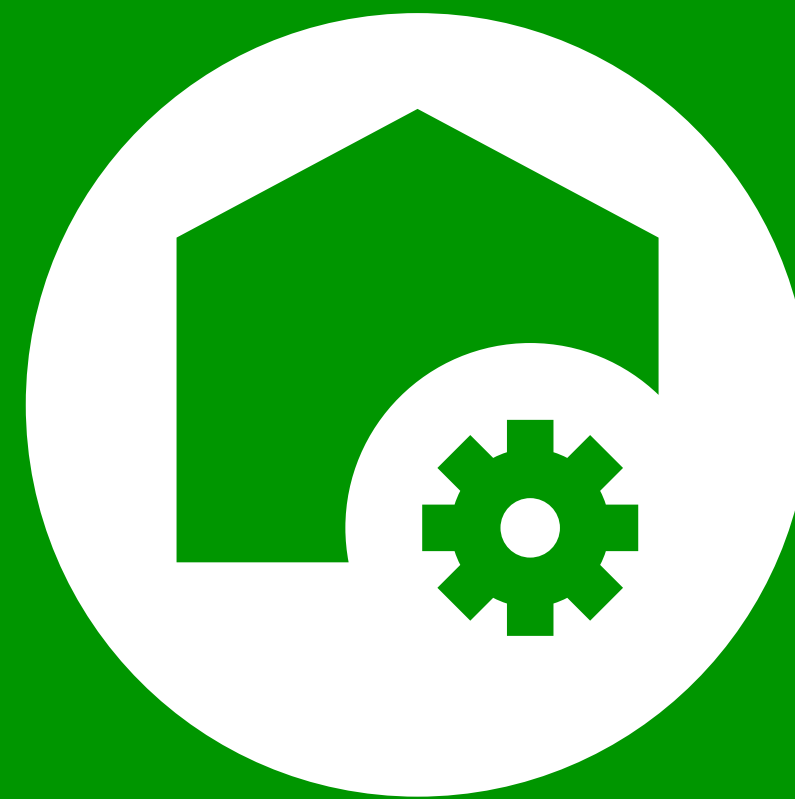
■ 정규직 ■ 비정규직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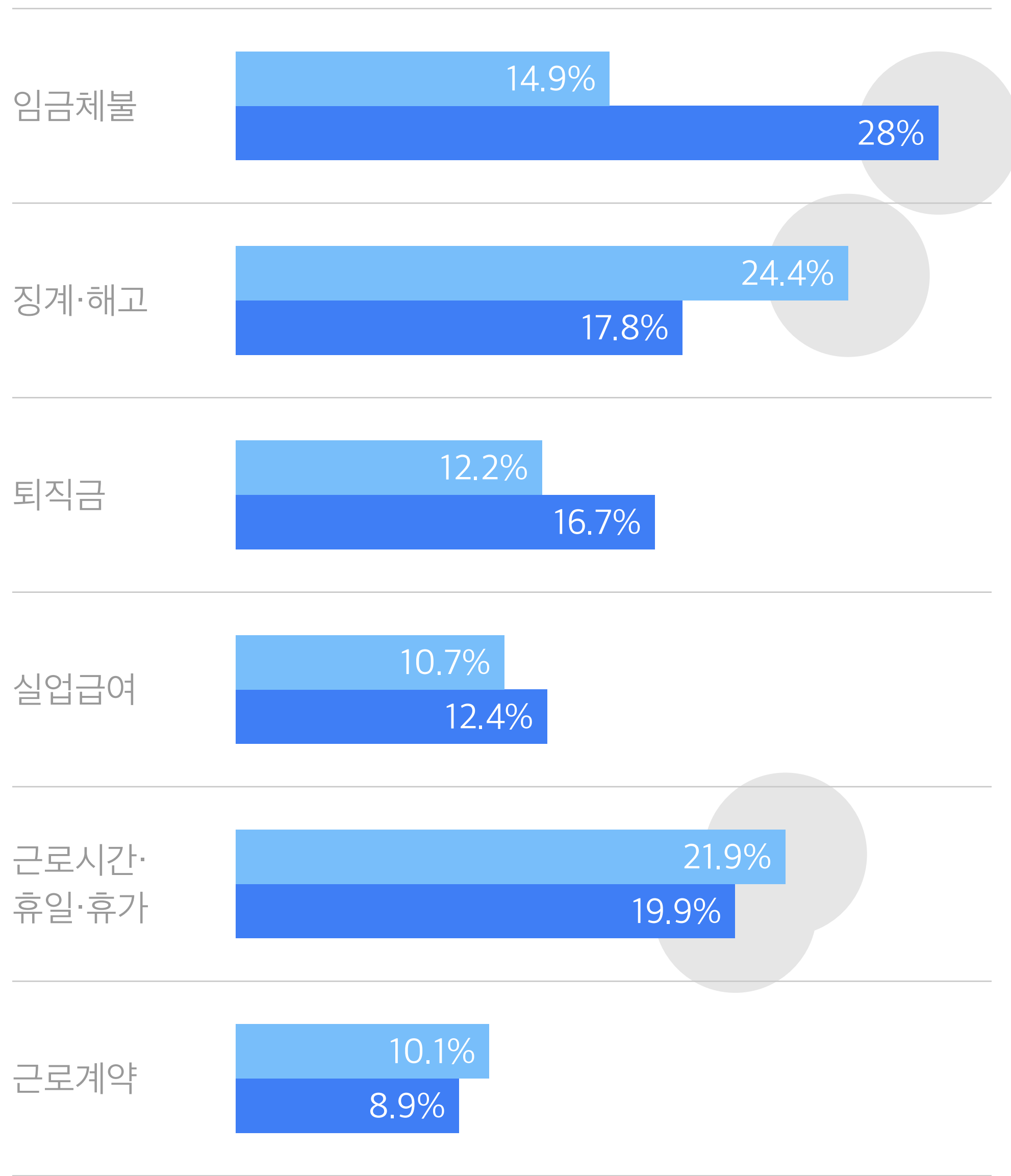
시설관리업

시설관리업종 종사자는 경비, 미화, 사무보조 등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대부분이며, 대다수가 비정규직입니다.



상담유형

■ 시설관리업 ■ 숙박업



시설관리업 종사자는 징계·해고와 근로시간·휴일·휴가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으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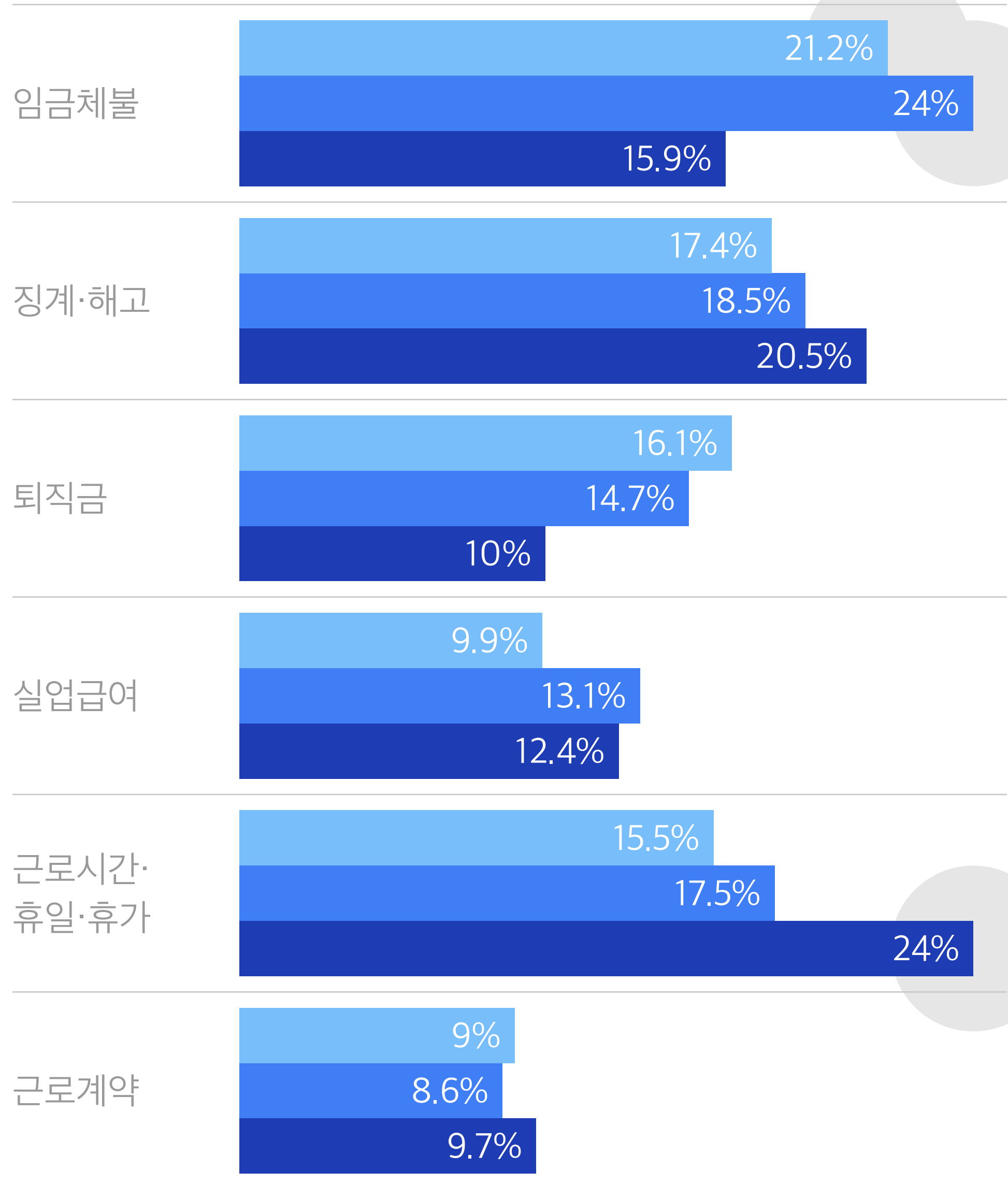


숙박업 종사자는 임금체불과 근로시간·휴일·휴가에 대한 상담이 많았습니다.



상담유형

■ 제조업 ■ 도소매업 ■ 보건업



제조업과 도소매업 종사자는 유사한 패턴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을 가장 많이 했고,



보건업 종사자 경우 근로시간·휴일·휴가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.



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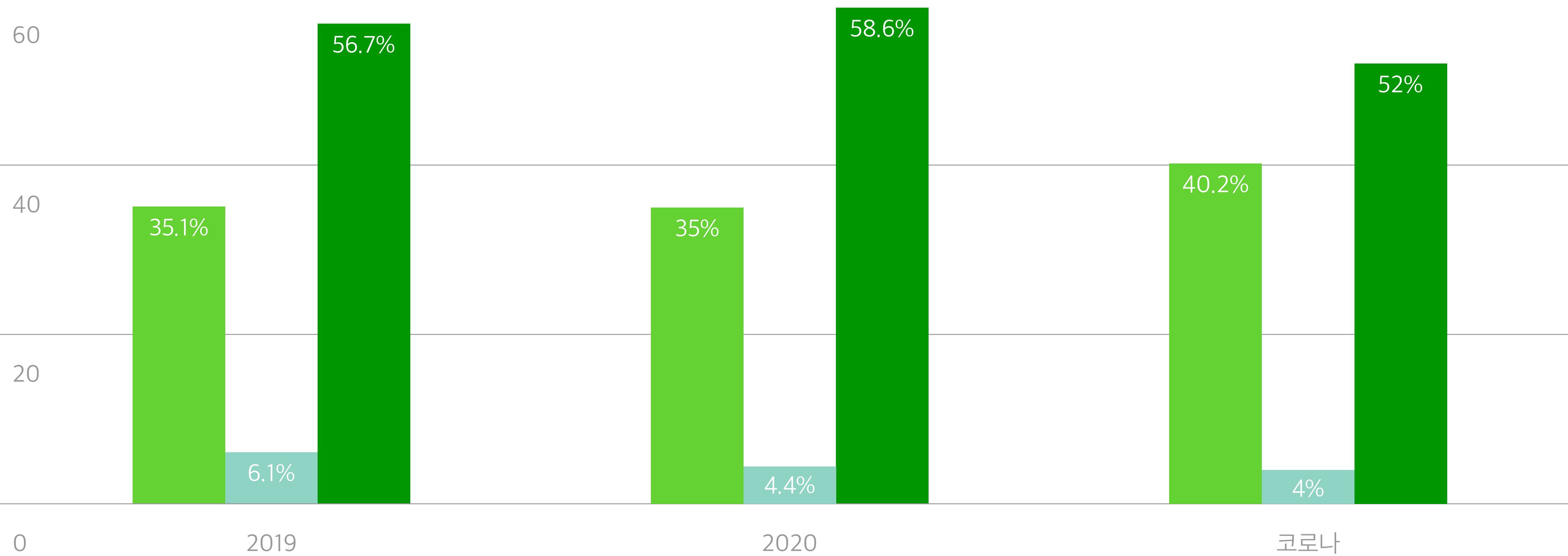
고용형태별 상담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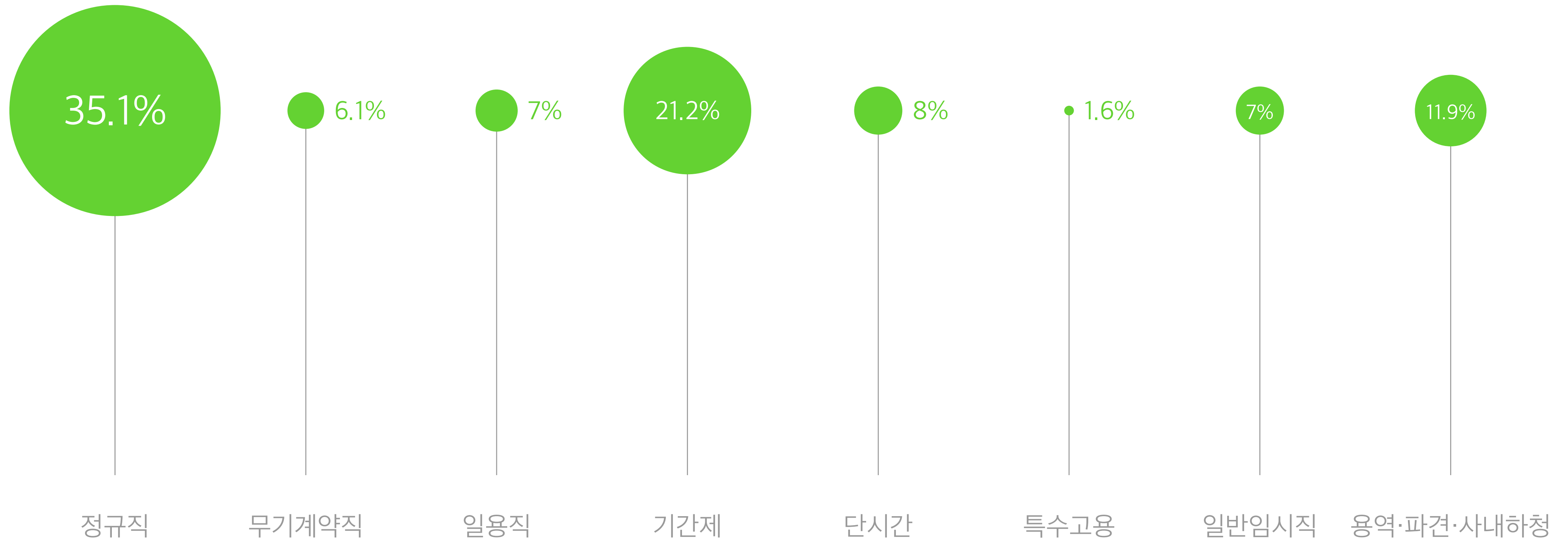


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비중은 58.6%로 가장 많지만,
정규직 노동자의 상담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

고용형태

■ 정규직 ■ 무기계약직 ■ 비정규직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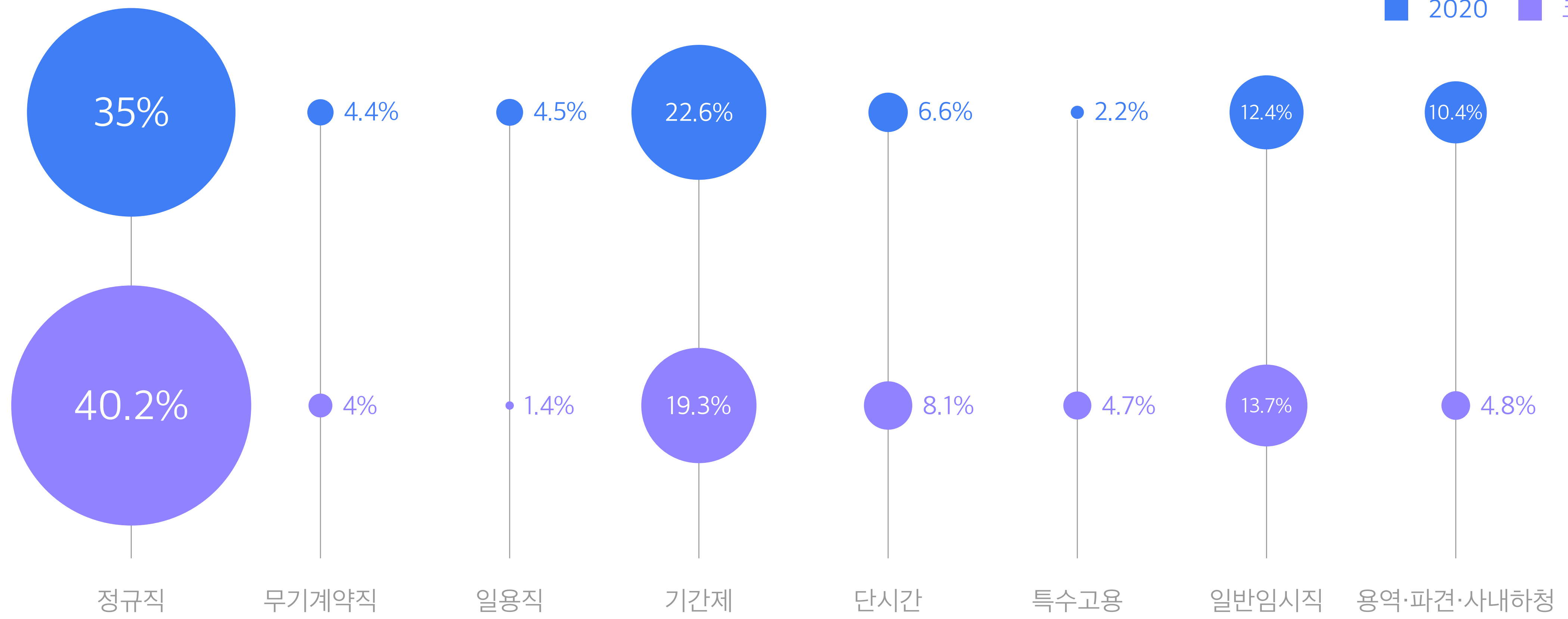
일반임시직

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불분명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등 언제든지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는 고용형태

☀ 2020년 노동상담과 코로나 상담 모두 정규직과 기간제, 일반임시직 순으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.

☀ 코로나 상담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상담이 많았고, 용역·파견·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상담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.

■ 2020 ■ 코로나



6

성별
주근로시간과
월평균임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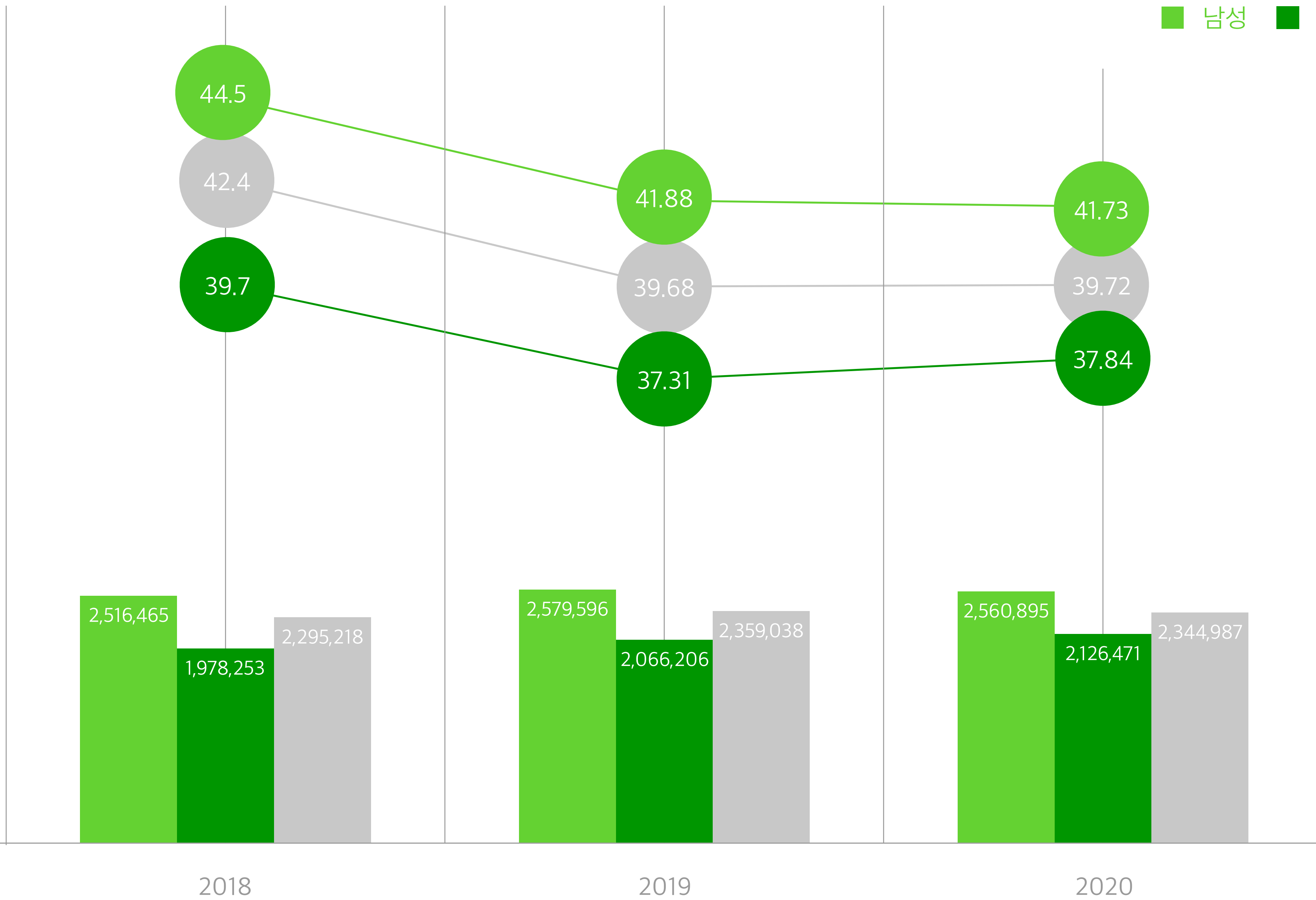
2019년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의 영향으로
남성과 여성 모두 월평균임금은 증가하고 주근로시간은 감소하였는데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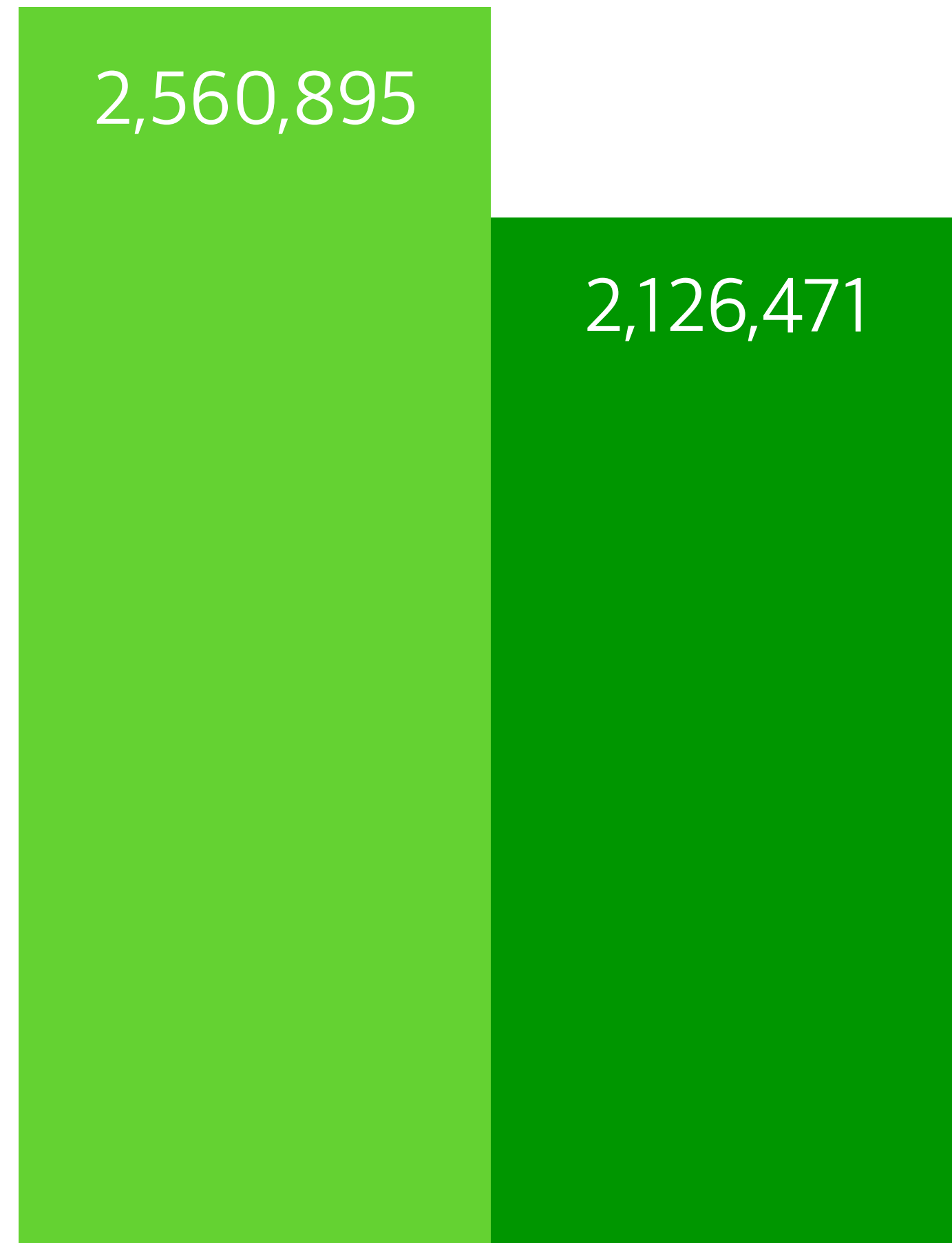
주 근로시간

■ 남성 ■ 여성 ■ 전체

월평균임금



2020년 남성은 임금, 근로시간 모두 감소한 반면 여성은 소폭 증가하여 남녀의 임금 격차가 50만원 미만이 되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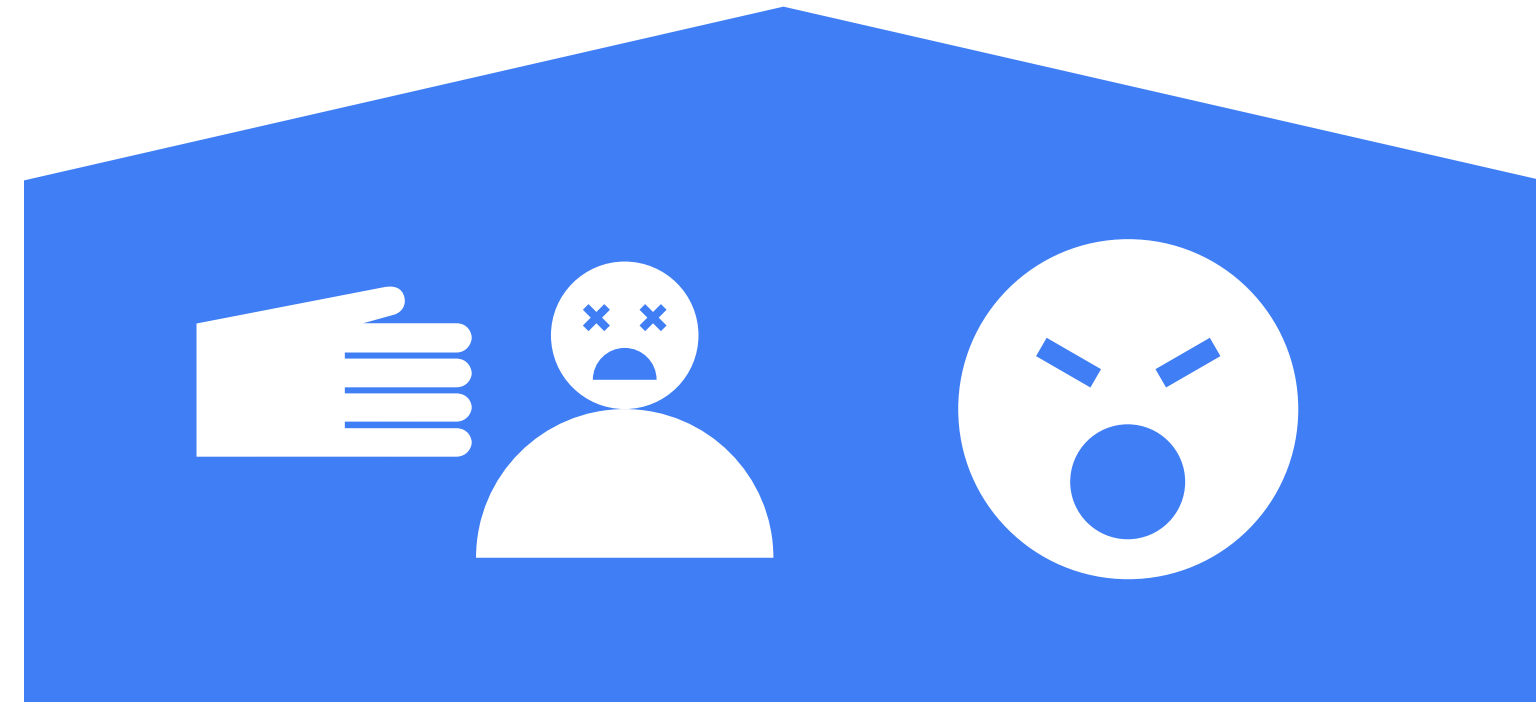
2020

임금 격차

434,424 원

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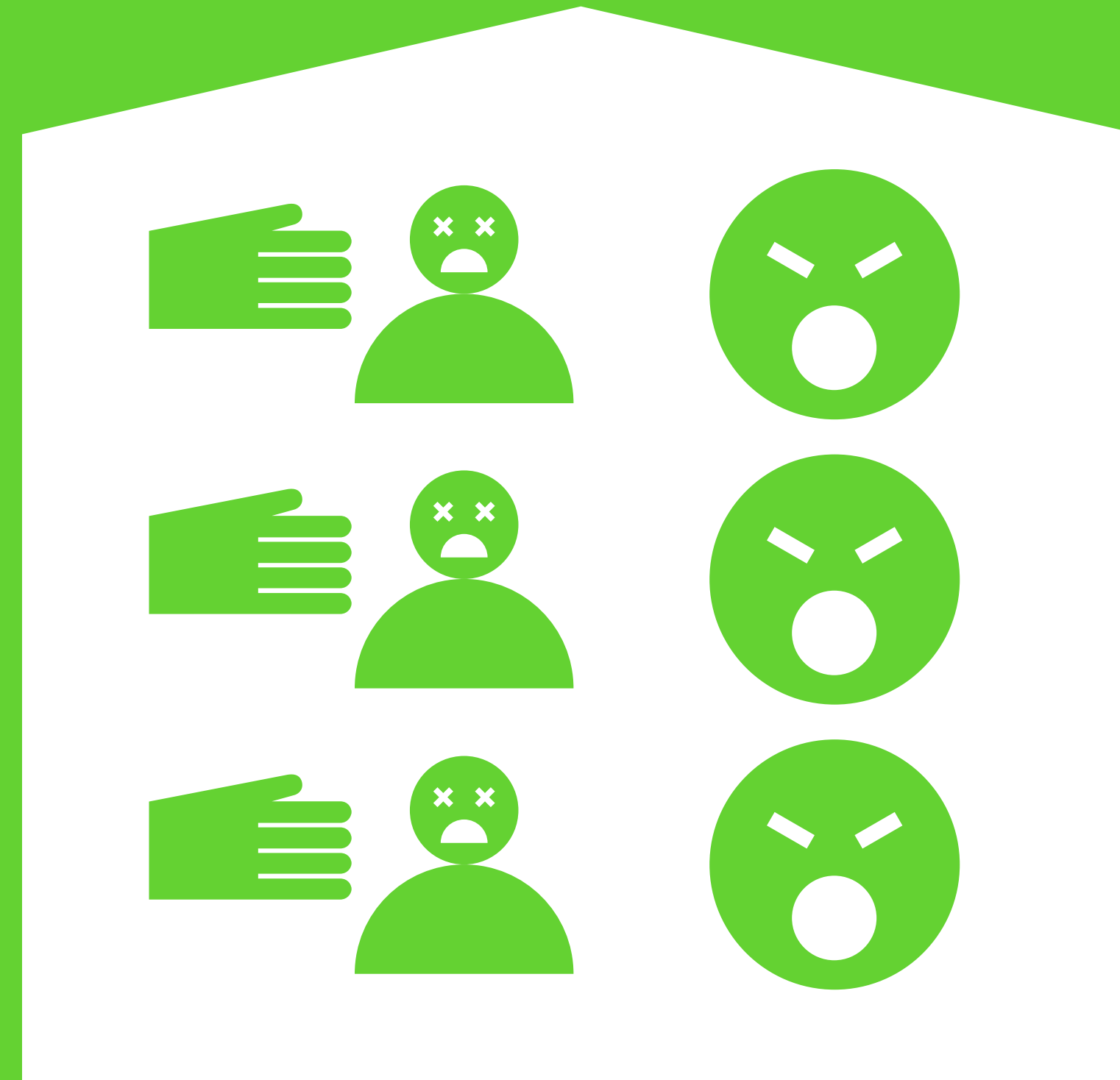
직장내 괴롭힘



직장내 괴롭힘은 상담비중이 높다 할 수는 없지만
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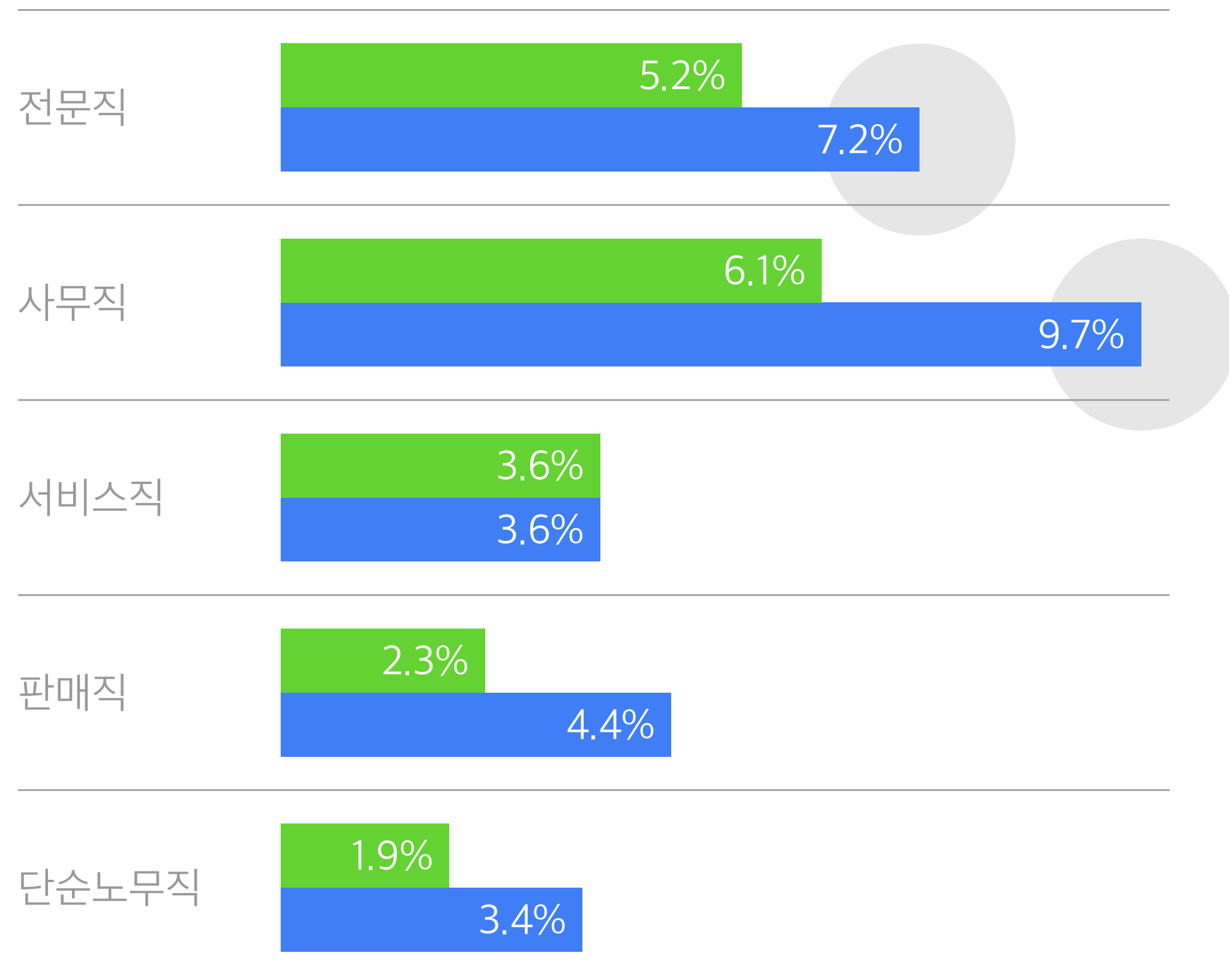
3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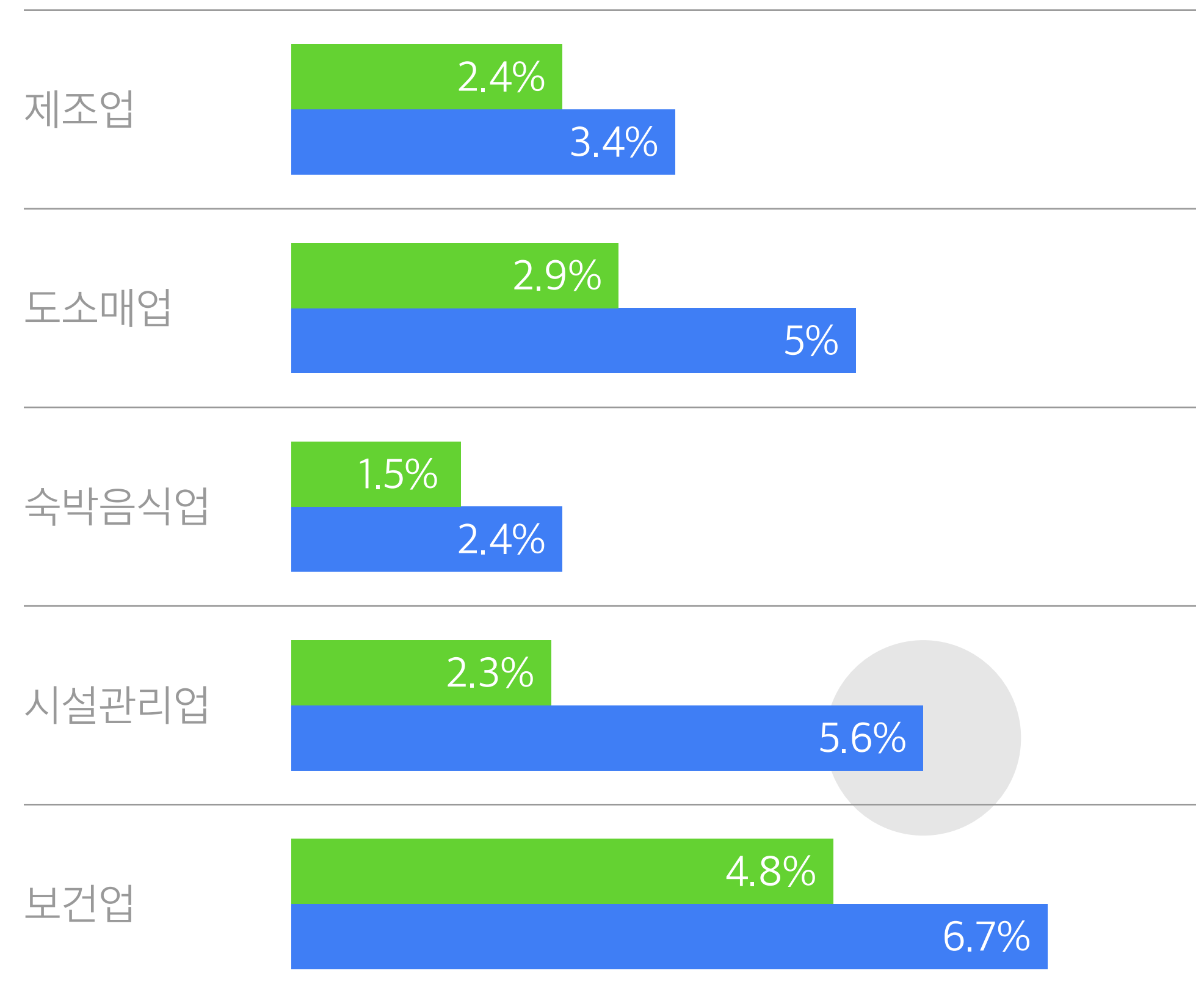
4.7%

직종에서는 사무직과 전문직이,
업종에서는 보건업과 공공행정, 시설관리업의 상담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

직종 ■ 2019 ■ 20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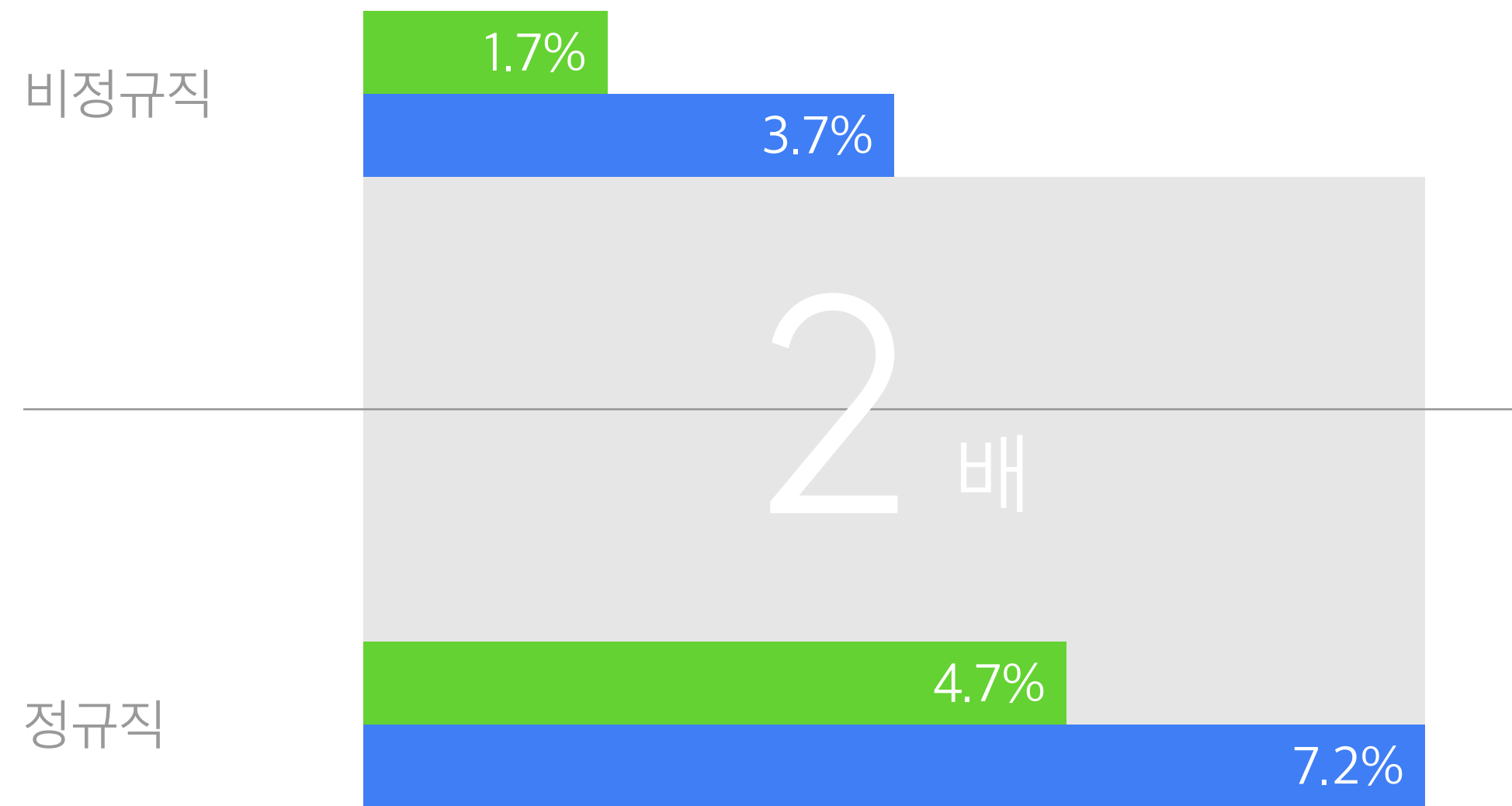


업종 ■ 2019 ■ 202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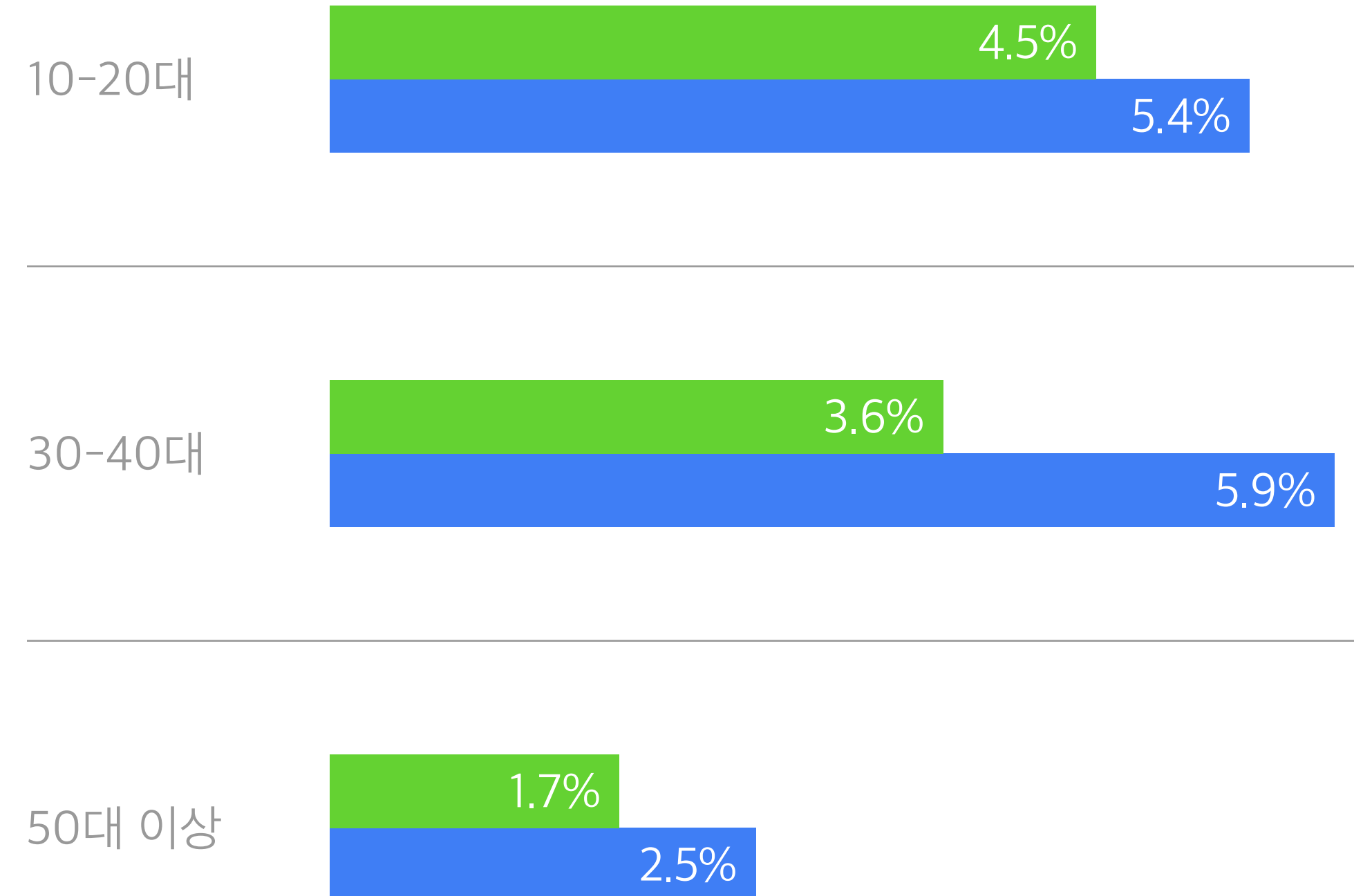


정규직 노동자의 상담비중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2배 가까이 되며,

고용형태 ■ 2019 ■ 202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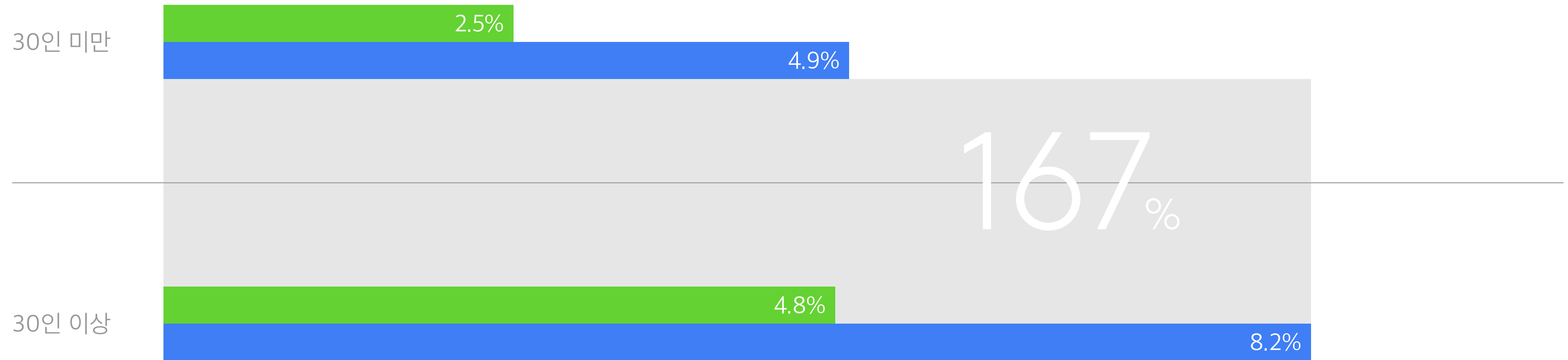
연령대 ■ 2019 ■ 2020



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는 괴롭힘 상담을 167% 더 많이 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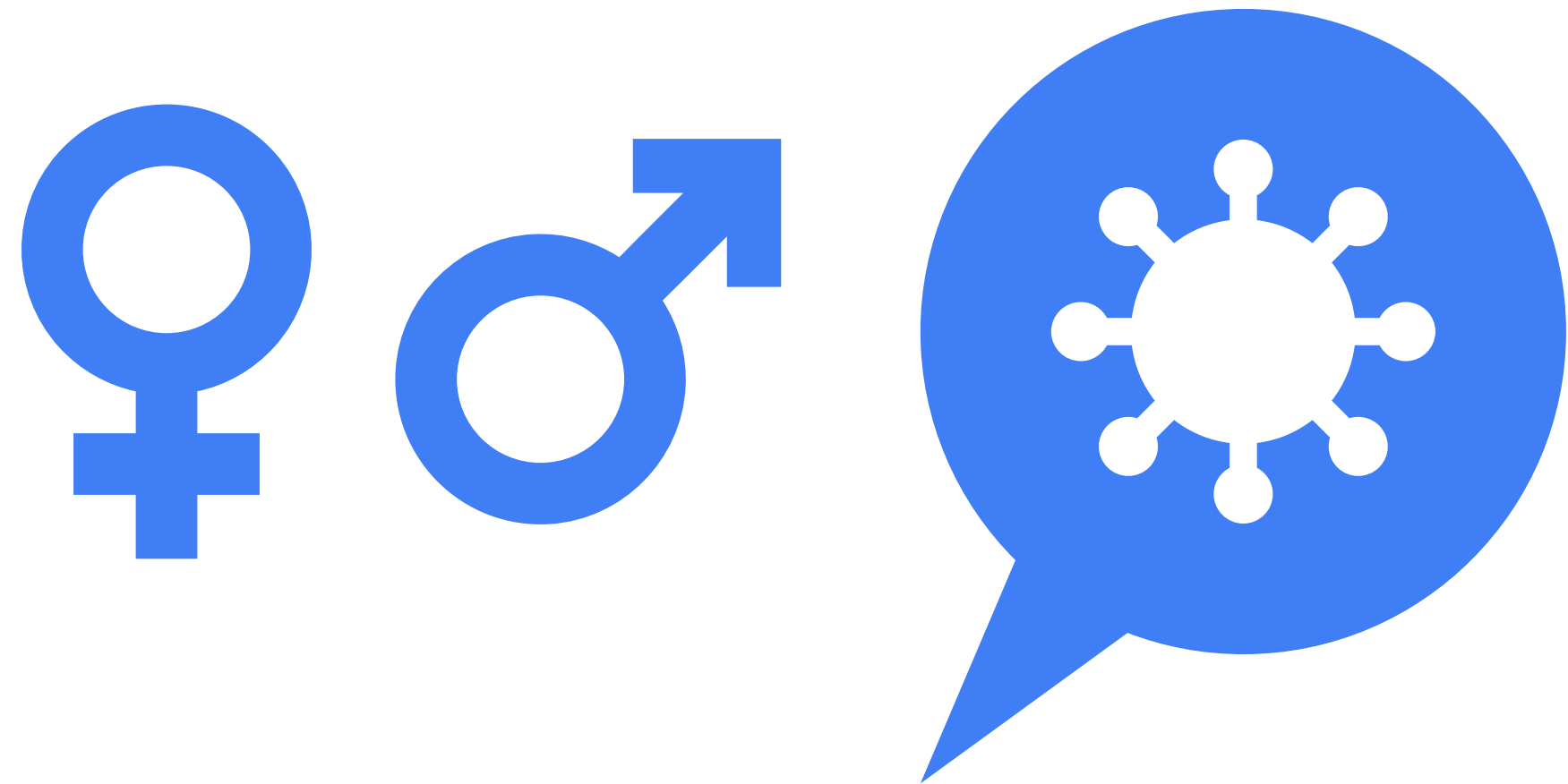
상시근로자 수

■ 2019 ■ 2020



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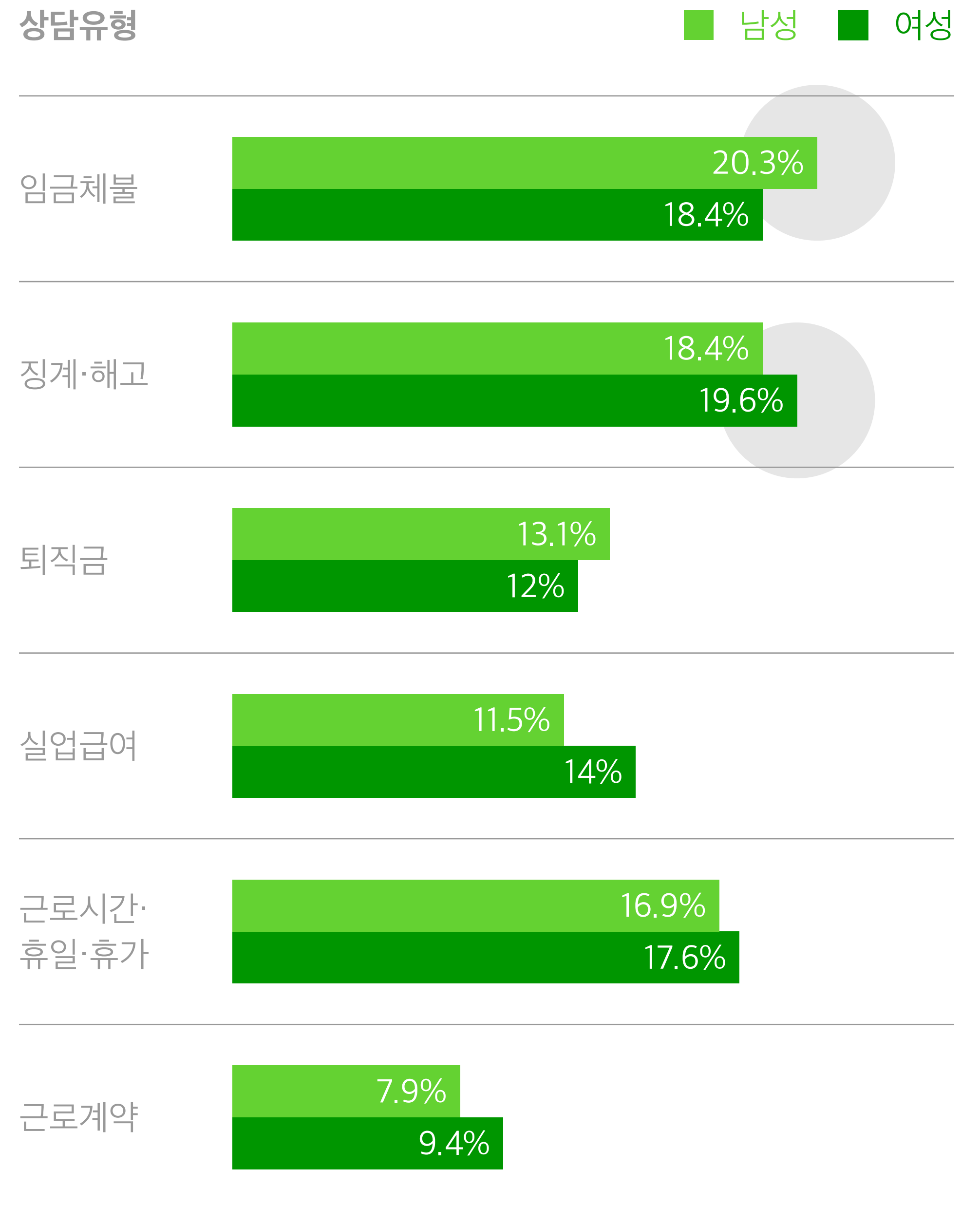
성별과 코로나 상담



전체 상담에서 남성은
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을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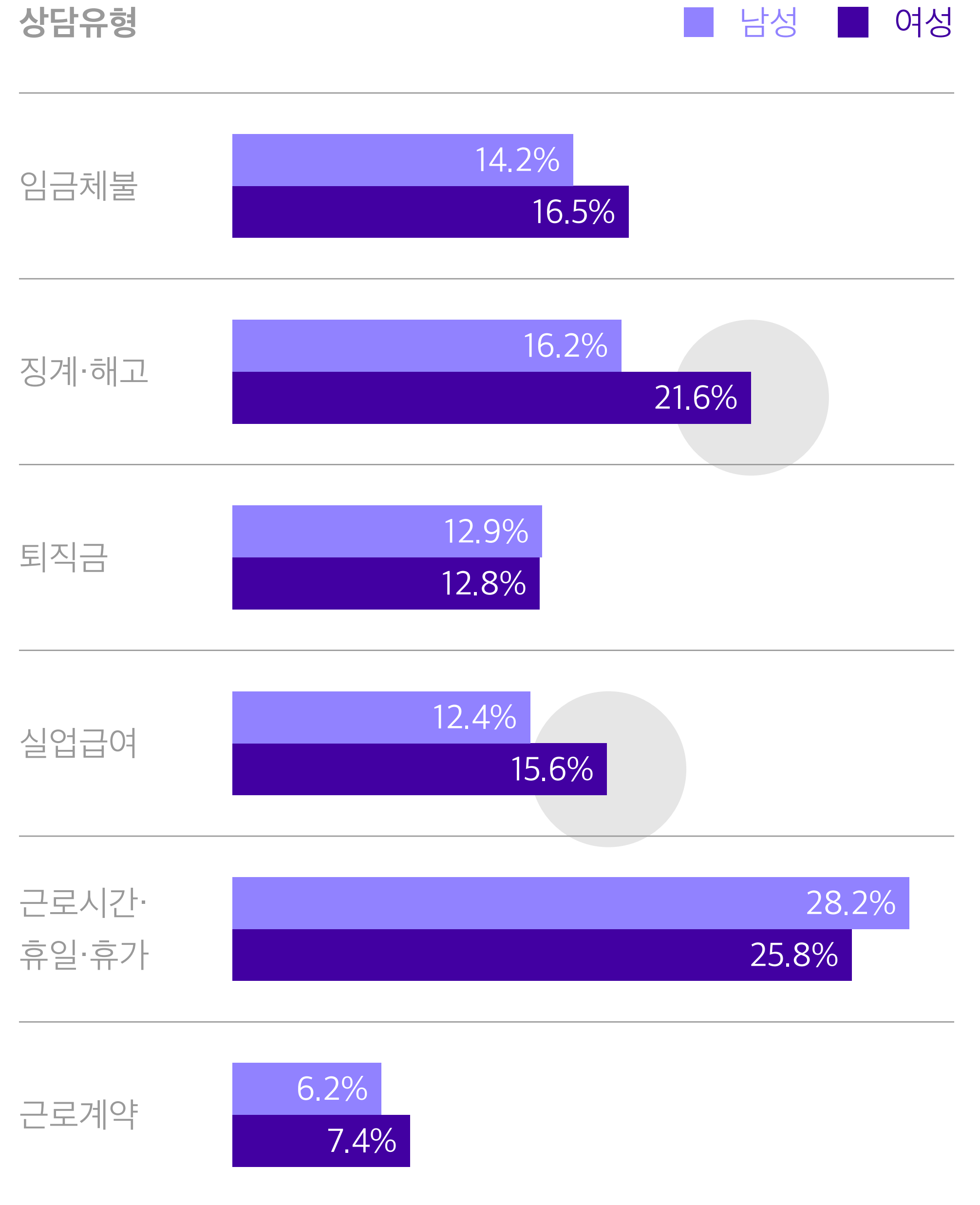
여성은 징계·해고에 대한 상담을
가장 많이 했습니다.



☼ 코로나 상담에서 근로시간·휴일·휴가에 대한 남성의 상담비중이 28.2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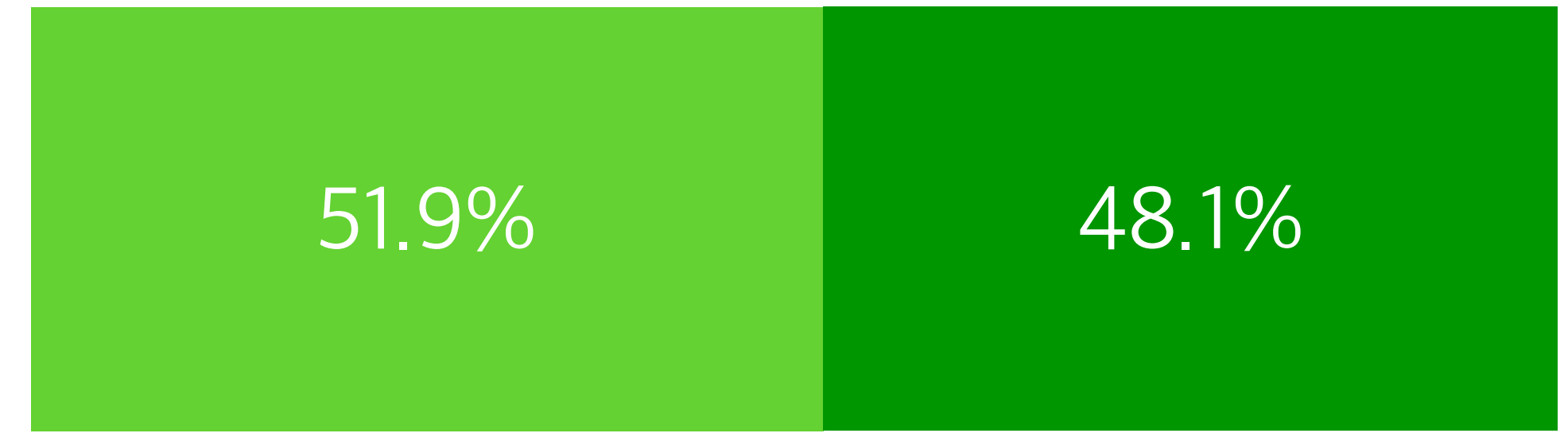
☼ 여성 역시 근로시간·휴일·휴가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지만 징계·해고, 실업급여 등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.



2020 노동상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상담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,

2020 상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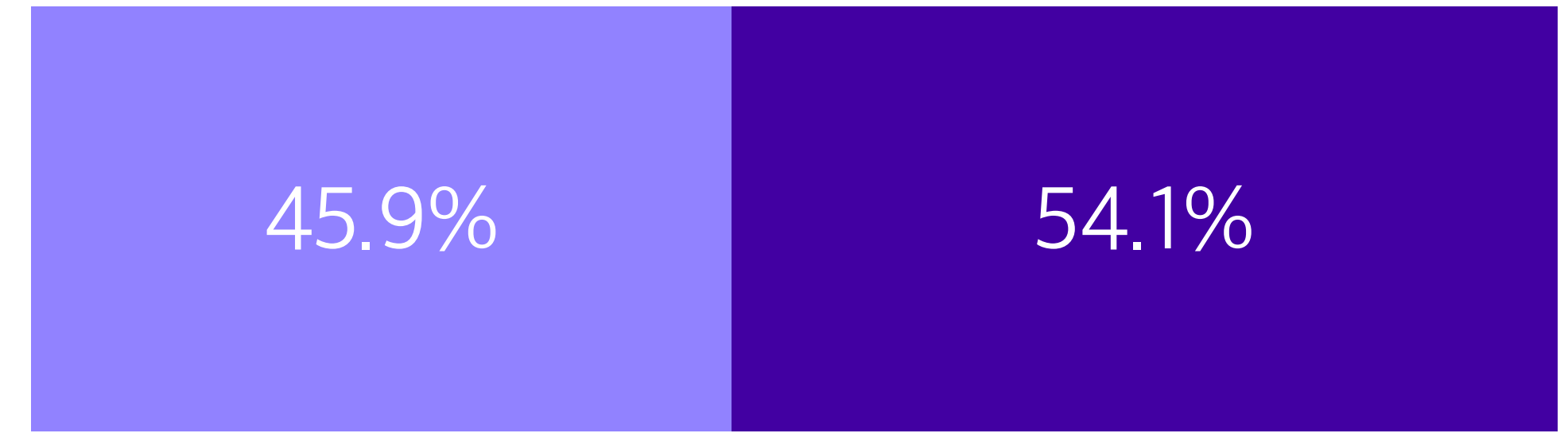
■ 남성 ■ 여성



☀️ 코로나 상담에서는 여성의 상담이 더 많았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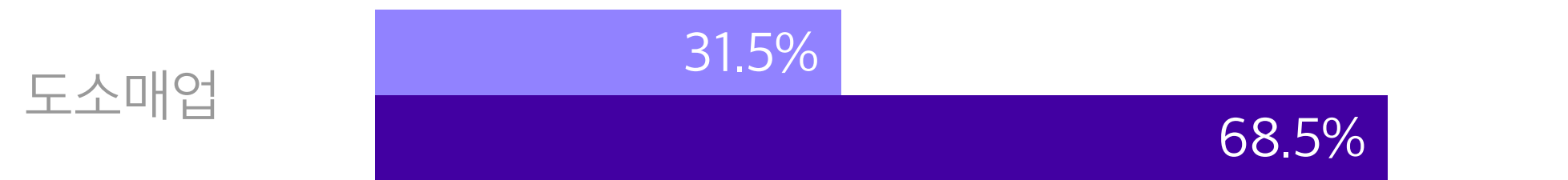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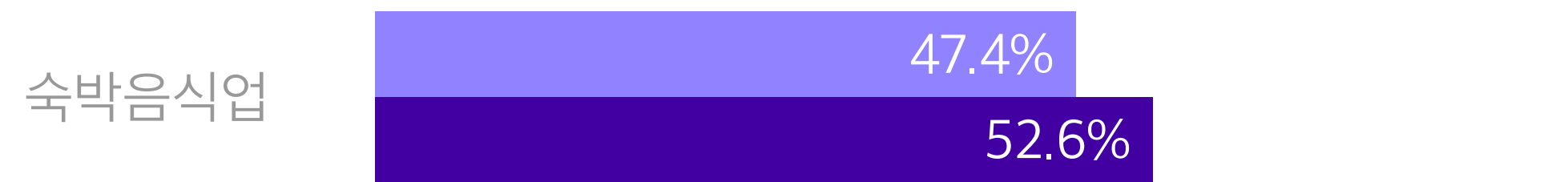
코로나 상담

■ 남성 ■ 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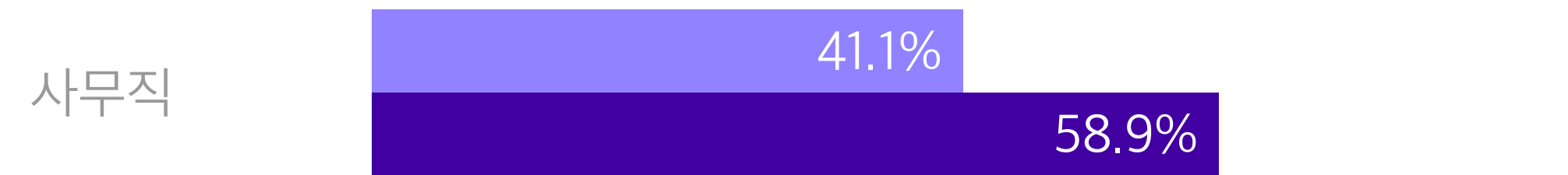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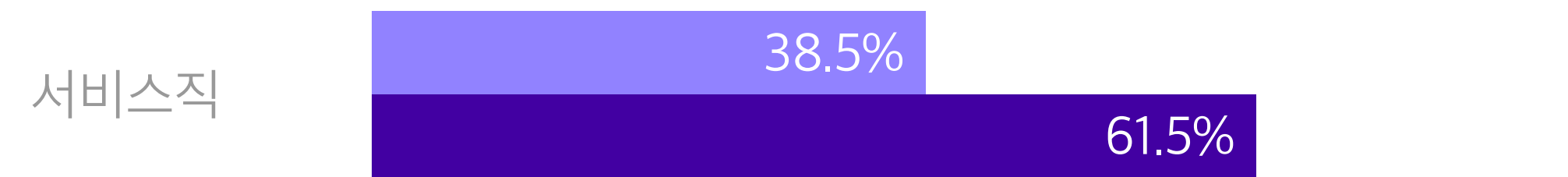


☼ 특히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, 서비스직 등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업·직종 상담 모두 여성의 비중이 과반 이상으로 높았습니다.

업종 ■ 남성 ■ 여성



직종 ■ 남성 ■ 여성



☀️ 사업장 규모로 비교해도 역시 여성의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.

상시근로자 수

■ 남성 ■ 여성

30인 이상

43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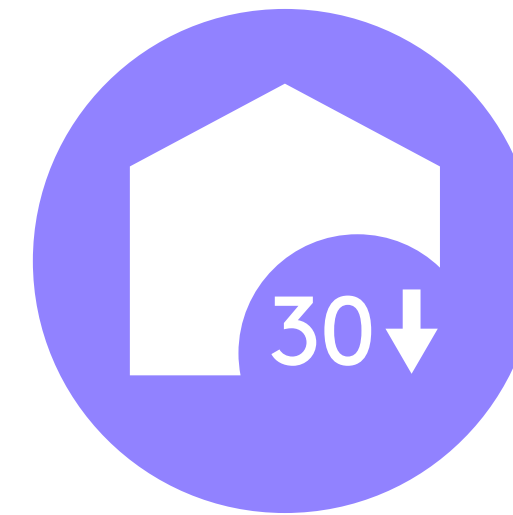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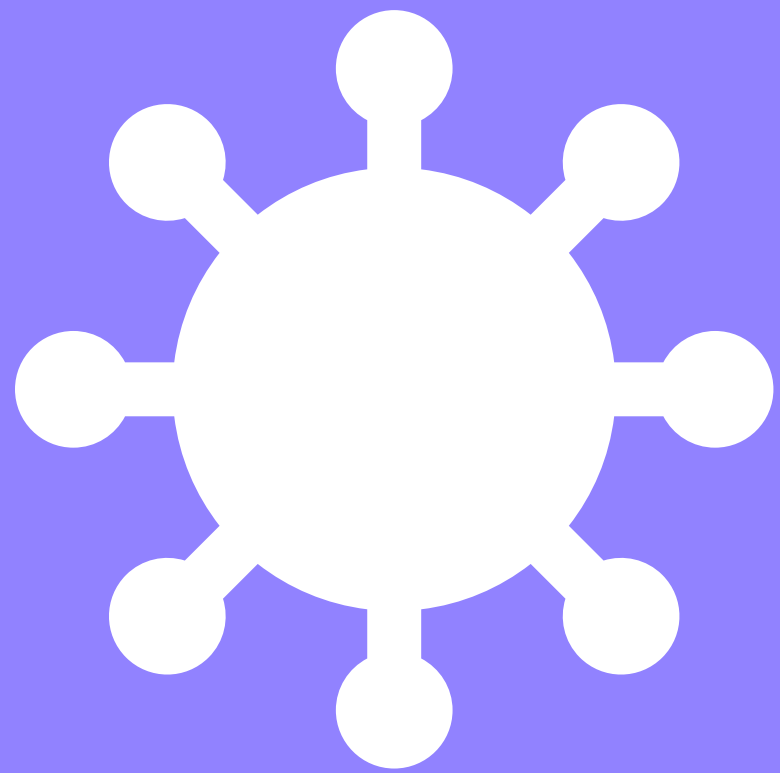
56.3%

30인 미만

46.5%

53.5%

☼ 종합하여 보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여성노동자, 특히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서비스 종사자가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저하 등 코로나로 인한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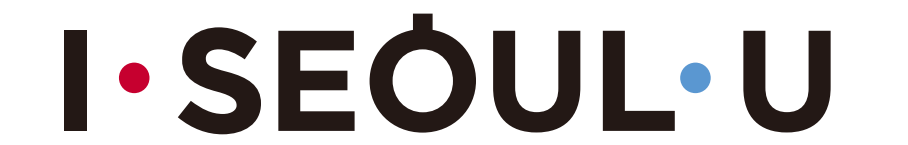


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2020

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(관수동 152-1)

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

www.labors.or.kr



기획

이혜수

최진혁

김은풍

이지영

이주영

편집

이지영

디자인

프론트도어

플레이트